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아직 따뜻한 보스톤, 암환자 돕기 모금 답지

골프대회 성황, 주최측 주위 어려운 이웃 돕는 계기 되길
총 수익금 \$4,460, 예상보다 많은 한인 도움의 손길 보내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최형철 씨를 돕기 위한 골프 대회 및 모금 만찬에 예상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여했다. 최근 이어진 불경기로 한인사회 내 활동이 상당히 약화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금활동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7년간 전신마비 부인을 병간호하다 책장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최형철 씨를 위해 북부 보스톤 일요골프회 김하동 씨는 기금마련 골프대회 및 만찬을 주최, 성금 \$4,460을 모아 지난 12일 수요일 저녁 최씨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52명이 참가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최 씨를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한인인 “일반적으로 보스톤에서 골프대회를 열어도 30명이 채 모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50명이 넘게 참여해 굉장히 놀랐다” 고 전했다.

‘골프를 사랑하는 모임’ 과 ‘충청향우회,’ ‘과학기술협회,’ ‘서강대 동문회,’ ‘문수사’ 등의 여러 한인 단체가 이날



지난 9일 최형철 씨를 위한 기금마련 골프대회 및 만찬이 열렸다. (만찬 장소 제공: 김경문, 사진: 신영)

골프대회를 지원했다.

다른 일정이나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많은 한인들은 성금을 따로 보내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인사회의 이례적인 동참을 통해 모인 기금의 총 액수는 \$4,460으로 지난 12일 최 씨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행사의 주최가 되어 성금을 전달한 김하동 씨는 특별히 순금을 입힌 하트 모양의 액자를 손수 제작해 선물했다. “이번 일을 통해 무엇보다 가족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는 김 씨는 최 씨의 가족사진이 들어갈 액자와

함께 성금에 동참한 한인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최 씨에게 건네 주었다.

김 씨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그의 간절함이 한인들에게 전해진 듯 이미 보스톤 한인사회 각지에서 다양한 도움의 활동이 시작된 바 있다. 오는 15일 토요일 북부 보스톤한국학교에서 최 씨를 위한 기금마련

▶▶2면으로 계속



15일, 오바마케어 공개등록기간 시작

웹사이트 시범 운영 순조로워 기대해도 좋을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오바마케어 공개등록기간이 오는 15일 토요일로 다가왔다. 등록 웹사이트(www.mahealthconnector.org)는 토요일 오전 8시에 새롭게 열릴 것이라고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가 발표했다.

매사추세츠 주 오바마케어 관장, 보험 거래소 역할을 담당하는 헬스 커넥터 미디어 담당 디렉터 제이슨 레퍼츠(Jason Lefferts)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웹사이트가 15일 열릴 예정” 이라고 전했다.

레퍼츠 디렉터는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것이다. 현재 시범 운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순조롭다” 며 기대해도 좋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롭게 개설된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 가입자들은 “훨씬 간편하고 쉬운 절차” 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재정 증명서류(Income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애나 정
Anna Jung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애나 정의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전문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최고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주택, 콘도, 렌트, 빌딩, 비즈니스, 분양
우수 학군 전문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콘도

- Brookline, MA, 방 2, 학 2, 1523 sq., \$725,000
- BU, Coolidge Corner에서 도보거리
- 햇빛 잘드는 실내, 벽난로, 풀밭이 적절이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한인회장 후보추천 위해 이사회 소집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없어 난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뉴잉글랜드 보스톤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안병학) 지난 10일 월요일 한인회관에 모여 39대 한인 회장 후보 찾기에 나섰다.

지난달 31일로 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거 규정상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해체되었고 이사회가 소집되어

추천제로 회장이 결정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한선우 한인회장은 “이사회에서 거론된 유력한 후보들을 몇 명으로 압축했지만 이미 회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던 인물들이 상당수” 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는 한인회 연말 파티까지 차기 회장이 결정되어야 취임식을 더불어 진행하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연말파티를 미뤄야 하는 대안도 고려 중” 이라고 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회장은 “한인회 운영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부담감이 후보들에게 큰 것 같다” 며 “이와 같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13명 중 8명(안병학, 이동수, 윤미자, 한선우, 이경해, 한순용, 최한길, 권복태)의 이사회들이 모였다.

dyoo9146@bostonkorea.com

또 다른 도움의 불씨가 되길

▶▶1면에 이어서

바자회가 열리며 서울대 동문회에 서는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아내 최혜연 씨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 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김 씨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 이라고 최 씨 가정을 격려했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최 씨는 변하지 않은 편안한 웃음을 지으며 “삶이라는 것은 원래 힘든 것” 이라고 담담하게 전했다고 한다.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을 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최 씨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다” 며 “되려 병문안을 받은 느낌” 이라는 것이 김 씨의 말이다.

최형철 씨는 도요타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부인 최혜연 씨를 17년 동안 간호해오며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써의 도리를 해왔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최 씨는 지난 9월 척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 10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기금마련 골프대회는 북부보스톤 일요골프회 회원들의 주최로 지난 9일 일요일 해버힐(Haverhill) 소재 크리스탈 레이크 골프 클럽(Crystal Lake Golf Club)에서 열린 바 있



행사를 주최한 북부보스톤 일요골프회 김하동 씨

성금 모금에 대한 문의는 김하동 씨(978-884-2194)에게 하거나 최형철 씨 주소(Choi, H.C, 50 Memorial Road 18C, Somerville, MA 02145)로 직접 전달하면 된다.

기금마련 명단
가위소리 김기석 김창근 박헌정 설인식 신고식 신대균 이충인 임상묵 장인숙 충청향우회 한지연

식사마련 명단
김희자 임현주 이지현 서진아 이학빈 임지영 김미리 하정에 신영 서수영

골프대회 참석자 명단
강석수 김경문 김동길 김동식 김병수 김승빈 김용희 김우근 김우성 김인배 김종효 김종훈 김하동 두현균 박노일 박정태 박종태 박헌정 방영식 백승욱 변철우 서규택 서준원 서태환 손정욱 신영 안경자 안승재 어양 오순희 유건우 유대근 윤형곤 이규판 이병현 이세형 이승주 이재규 이재문 이재영 이정일 임상묵 전옥현 정명철 정영국 조영태 조효상 진중삼 최명숙 하경남 한우석 한일교

dyoo9146@bostonkorea.com

토요일 오전 8시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열려

▶▶1면에 이어서

documents), 거주지 증명서류 등이 있다. 기타 구비 서류는 헬스커넥터가 지난달 우편으로 발송한 보험 가입 패키지에 ‘공개등록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 로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레퍼츠 디렉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일렀다. 첫째로는 로그인에 필요한 계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점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멈춰야 할 때는 세이브(Save)를 하면 다시 돌아와서 작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제출(Submit)을 하게 되면 콜센터에 연락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니 모든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레퍼츠는 보험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 확인을 위한 기본 정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차종이나 이전 주소 등을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야 본인 인증이 되어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돕기 위한 헬스커넥터 콜센터(877-623-6765)는 오는 15일부터 연장운영 서비스를 실시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콜센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공개등록기간에는 현재 헬스커넥터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을 비롯해 보험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가입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 체험 다큐멘터리 '북녘에서 온 노래' 하버드 상영

매사아트 유순미 교수, 정치와 사회적 편견 떠나 예술적 관점으로 기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실만 보고서는 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죠.” 다큐멘터리 ‘북녘에서 온 노래(Songs from the North)’의 감독 유순미 매사아트(MassArt) 교수의 말이다.

유 교수는 2010년 겨울부터 2012년 여름까지 총 3차례 북한 땅을 밟았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몸소 이북의 삶을 느끼고 영상으로 담아온 그녀의 72분 짜리 기록 영화는 오는 16일 일요일



매사아트(MassArt) 교수로 재직 중인 유순미 감독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Harvard Film Archive)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북녘에서 온 노래’는 북한에서 직접 촬영했던 영상뿐 아니라 북한에서 제작된 이념 선전용 영화 등의 자료가 함께 어우러진 다큐멘터리다. 유 교수는 “비록 가이드가 안내하는 곳에만 가야 했고 행동에 제약이 컸지만 호텔 방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나 이동 중 보이는 모습을 담았다”며 북한 방문의 아쉬움을 전했다.

‘북녘에서 온 노래’는 통일이나 이념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아니다. 북한의 사상과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왜?”라는 질문에 예술의 역할을 주입시켜 보이는 현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영상 매체일 뿐이다.

유 교수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은 모두 북한에 대한 자기만의 편견이 있다”고 한다. “김씨 삼대 정권이 나 공산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은 단순히 코미디의 소재가 된다거나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영화는 그런 편견들이 배제되어 북한의 실상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관객에게 그 과정을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세



다큐멘터리 '북녘에서 온 노래' 스틸샷

차례의 방문을 통해 유 교수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 내린 결론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며 “물론 사상이 주입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리잡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보스톤 첫 상영을 앞두고 유 교수는 들뜬 기대감을 보였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고 순전히 예술적인 의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관객의 반응을 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보스톤의

한인이 다 몰리면 아마 자리가 모자랄 텐데”라며 유쾌하게 웃었다.

지난 8월 개봉한 이 기록영화는 2014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오페라-프리마 최우수 데뷔작 표범상을 수상했다. 유 교수의 또 다른 작품으로는 ‘파프롬 아프가니스탄(Far From Afghanistan, 2012)’이 있다.

유순미 감독의 ‘북녘에서 온 노래’는 오는 12일 일요일 오후 7시에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유 교수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티켓은 상영 45분 전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티켓 문의는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617-496-6750)로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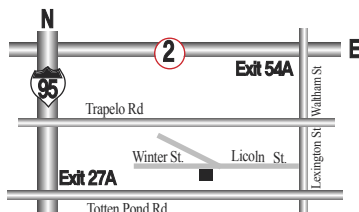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꿈을 이뤄드립니다' 이채영 변호사 MIT 강연

“실망과 좌절을 겪고 있다면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꿈을 이뤄드립니다: 세계에서 우뚝 선 한국인 9명의 비밀’ 의 저서 이채영 씨의 강연이 오는 20일 저녁 6시에 MIT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은 ‘학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Things I wish I knew in school)’ 이라는 주제로 꿈과 삶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보스톤의 한인 학생들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우연히 모교를 방문할 기회를 얻어 MIT 캠퍼스를 걷던 이 씨는 “지금 아는 것을 학생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강연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번 강연을 통해 내가 배운 행복과 성공에 대해, 책을 펴낸 계기, 다양한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채영 씨는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책 ‘꿈을 이뤄드립니다’ 를 2012년 7월 한국에서 출간한 바 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날 행사는 오는 20일 오후 6시 MIT Room 4-370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음 링크 (<http://goo.gl/forms/JuhIkVhfvy>) 나 이메일 (mirichoi@mit.edu)로 참석여부를 알리면 된다. 강연 이후에는 이 씨의 사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변호사 이채영의 MIT 강연이 오는 20일 열린다

현재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채영 씨는 뉴욕 라디오 코리아에서 ‘채영의 뉴욕 뉴욕’ 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그녀가 올해 기획하고 있는 꿈 찾기 프로젝트 ‘기브원드림 (Give One Dream)’ 의 네 번째 이벤트로 진행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출신 피아니스트 반다 백 쇼팽 연주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출신 피아니스트 반다 백 (Wanda Paik)의 쇼팽 연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일요일 미들섹스 커뮤니티 칼리지 (Middlesex Community College, 591 Springs Rd, Bedford, MA 01730)에서 열린다.

월드오브 뮤직 콘서트(World of

Music Concert)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 백 씨는 6곡의 쇼팽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백 씨는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웨스턴(Weston) 소재 레지스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피아니스트 백혜선, 보스톤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브람스 협연

현란한 기교와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클래식 거장 음악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브람스 연주회가 오는 20일과 22일, 23일에 열린다.

“백 씨는 클래식 거장 음악가 중 하나” 라고 전한 보스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벤자민 잔더 (Benjamin Zander)는 “현란한 기교는 물론이거니와 피아노를 지배하는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음악가” 라며 백 씨를 극찬했다.

이어 “보스톤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런 음악가와 협연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고 전했다.

백 씨는 뉴잉글랜드 콘서버토리 (NEC) 예비학교를 거쳐 동교 콘서버토리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은상, 미국 윌리엄 카펠 콩쿠르 1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3위 입상 등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뽐내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자리잡았다.

20일 목요일과 23일 일요일 공연은 캠브리지 소재 샌더스 극장 (Sanders Theatre)에서 열리며 22일 토요일 공연은 보스톤 소재 조던 홀 (Jordan Hall)에서 열린다.

자세한 연주회 정보와 티켓 문은 보스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웹사이트 (www.bostonph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첼리스트 여미혜, 보스톤 첫 무대 선보인다

첼로는 악기가 아닌 평생을 같이 하는 가장 친한 벗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첼리스트 여미혜가 오는 12월 14일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Boston Classical Orchestra)와 협연을 펼쳐 첫 보스톤 무대를 선보인다.

현재 비엔나에 거주하고 있는 여미혜 씨는 “유럽에서 떠난 필그림이 처음으로 정착한 보스톤은 마치 작은 유럽과 같은 도시”라며 “역사가 깊은 도시,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페넬 홀, Faneuil Hall)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며 첫 보스톤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보스톤에서 공부한 동생을 보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도시”라고 전한 여씨는 “한국에서 가르쳤던 상당수의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는 곳”이라며 보스톤에 대한 특별한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번 공연에서 여씨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이는 곡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D장조’다. ‘멜로디 라인

이 매우 단순해서 듣기에는 편안한 곡이지만 연주자 입장에서는 음악적으로 진정한 하이든을 표현하기가 무척 힘든 곡”이라는 것이 여씨의 견해다. 심혈을 가장 많이 기울인 곡으로써 기대해도 좋다는 여씨의 포부가 돋보이는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악기를 배우고 싶어했던 초등학교의 여씨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키도 덩치도 컸다는 이유로 음악을 가르쳤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첼로를 권유받았다고 한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악기를 구입하여 배우기 시작한 것이 평생 직업이 된 것이다.

웬만한 사람보다 큰 첼로를 들고 다니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크기도 크고 무거운 뿐 아니라 기차나 항공편은 첼로를 위한 좌석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여씨는 “첼로가 물건이 아닌 좋은 평생 친구와 항상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행복한 일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첼리스트 여미혜에게 첼로는 “평생을 함께하는 베스트(Best Friend)”라고 한다.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고, 힘든 곳을 갈 때에도 단 한번도 불평을 하지 않는 친구”라고 전했다. 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루고 정성껏 보살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소리를 내게 하는 비법이라고 덧붙였다.



첼리스트 여미혜의 보스톤 첫 공연이 오는 14일 페넬 홀에서 열린다

줄리어드 음대를 거쳐 미시간 음대를 졸업,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씨는 중앙 콩쿠르 입상, 영국 아버딘 인터네셔널 챔버 페스티벌(Aberdeen International Chamber Festival)에서 피아노 트리오 1위 등의 화려한 국내외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보스톤 연주회 이후의 일정으로는 내년 초 비엔나 국립음대 교수들과의 피아노 트리오 공연, 성남시향과 엘가

협주곡, 베를린 필하모닉 홀에서 베를린 심포니와 협연이 등 약 25회의 공연이 기획되어 있다.

첼리스트 여미혜의 연주회 티켓 문의는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 웹사이트(www.bostonclassicalorchestra.org) 혹은 전화(866-811-4111)로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한양대 연말 동문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양대 동문회(회장 정명상)가 오는 23일 일요일 웨스트우드(Westwood) 동문 자택에서 연말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는 회계보고 및 2015년도 임원진과 계획안을 구성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친교식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동문회 측은 “많은 동문가족이 참석하여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문회 관련 문의사항은 총무 심규하(351-201-9103), 부회장 김천기(914-420-9848) 혹은 회장 정명상(781-708-3160)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133 Hemlock Dr, Westwood, MA 02090 (정명상 동문 자택)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블랙 프라이데이, 핑스기빙 맞아 알뜰쇼핑 즐기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핑스기빙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는 미국 최고의 쇼핑시즌으로 대형 쇼핑업체들의 대대적인 세일이 시작되는 시기다.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일년 중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그만큼 다양한 물품들이(특히 전자 기기)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일년 최대의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정보와 기간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욱 효율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겠다.

블랙 프라이데이 공식 웹사이트(blackfriday.com)에는 각 업체들의 세일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심지어 세일 정보를 알려주며 비교도 해주는 다양한 앱(Black Friday 2014 Ads App)도 있으니 스마트폰 유저들은 유용하게 활용하면 된다. 아래는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쇼핑 개장시간과 특별 할인 상품이다.

▶월마트(Walmart)

27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는 주말 내내 이어질 예정이

다.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계속되는 전 품목 30% 할인은 일요일까지 계속된다.

VIZIO 65" 1080p 120Hz Class LED Smart HDTV \$648.00

Canon Rebel T5i dSLR Camera 2-Lens Bundle \$699.00

Apple iPad Mini 16GB Wi-Fi (w/ Free \$30 Walmart gift card) \$199.00

Apple iPad Air 16GB WiFi (Free \$100 gift card w/purchase) \$397.00

Nabi 2 8GB Memory \$99.00



▶베스트 바이(Best Buy)

온갖 종류의 전자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베스트 바이는 목요일 오후 5시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된다. 특별히 아이패드 에어 2 16GB, 64GB, 128GB 제품은 모두 \$100이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HP - Pavilion 23" IPS LED HD Monitor \$149.99

Samsung 25.5 Cu. Ft. French Door Refrigerator, Stainless-Steel \$999.99

Apple MacBook Air 13.3" Display, Intel Core i5, 4GB Memory, 128GB Flash Storage \$949.99

Sony 60" Class (60" Diag.) LED 1080p 120Hz Smart HDTV Sale \$799.99



▶메이시스(Macys)

메이시스 백화점은 목요일 오후 6시에 블랙 프라이데이 도어 버스터 할인을 시작한다. 의류, 전자 기기, 미용 잡화, 가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이 최소 30%에서 75%까지 할인을 한다. 이 할인가는 12월 2일 화요일까지 적용된다.

▶랜섬 빌리지 프리미엄 아울렛(Wrentham)

Village Premium Outlet

다양한 브랜드의 상점이 들어서 있는 랜섬 아울렛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 중 하나다. 각 매장 별로 할인 폭이 다르니 미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일이 한창인 늦은 시각에는 차가 밀려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가 어려우니 일찍부터 서두르는 것을 권장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열린법회 모임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열린법회가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벨몬트(Belmont)에서 정기 모임을 가진다.

매월 넷째 토요일 열리는 정기 모임에는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강연을 보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다과와 함께 교제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보스톤 열린법회 관계자는 “유튜브나 다른 방법으로 스님 강연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강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처럼 볼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 이메일(bostonjungto@gmail.com)이나 전화(617-977-4227)로 참가 신청여부를 밝혀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뉴잉글랜드 마스터 태권도 대회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마스터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New England Master Open Taekwon-Do Championship) 대회가 지난 19일 일요일 노우드 고등학교 (Norwood High School)에서 열렸다.



지난 19일 열린 뉴잉글랜드 마스터 태권도 대회

20여개의 한국 사범도장과 18개의 미국 사범도장에서 총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행사 관계자들과 관중을 포함해 7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강원 관장은 “선수들이 애국가를 따라 부르거나 점심으로 매운 돼지 불고기와 김치, 잡채 등을 먹는 모습을 볼 때, 태권도 사범들에 의해 미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게 하는 행사였다”고 전했다.

도장의 에롤 보우스 (Errol Bowes) 선수가 그랜드 챔피언을 차지했고 경량급에서는 보스톤 태권도 도장의 조이 디커슨 (Joy Dickerson) 선수와 J.H Kim 캠프리지 도장의 알렉스 쿼 (Alex Kwon) 선수가 차지했다.

초대 회장인 이강원 관장(이학재 사범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두고 열렸다. 한 행사 관계자는 “미국 사범들과 선수들에게 1세대 한국 원로 사범들의 노고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인 태권도 도장 사범들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뉴잉글랜드 태권도협회

bostonkorean@hotmail.com

중량급에서는 한미 (Hanmi) 태권도

태권도 선수 에디 정,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 획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우스터 (Worcester) 출신 태권도 선수 에디 정 (Edward Jeong, 19)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린 제9회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획득한 것은 이례적이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국에서 500여명의 태권도 국가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자리로 마련된다.

에디 정은 부친인 슈즈버리 USTC 그랜드마스터 정제형 관장의 “초심을 잃지 마라”는 말을 되새겨 더욱 심도 있는 훈련으로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10회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우스터 출신 에디 정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 내셔널 챔피언십 품새분야에서 우승을 거둔 정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의 출전권을 얻었다. 그는 시니어 1 페어 부문에 참가해 태백과 금강품새로 결승에 진출, 8개의 팀과 겨루어 멕시코, 대만의 뒤를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정 선수는 개인전에도 참가했지만 아쉽게도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이 시니어 부문에서 메달을

세계선수권 대회는 2006년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래 매년 50여개

평통 주최 재향군인의 날 행사 성황

한미 참전용사와 한미노인회 회원 100여 명이 참가

박사가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황우성 박사(하바드 연구교수)는 진료 동안 러시아 과학계의 성향과 러시아 북한 유학생들의 경직된 유학생 생활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이 지난 8일 토요일 주최한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 앤더버 소재 국제선교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미 참전용사와 한미노인회 회원 100여 명이 참가했다.

2부에서는 김성혁 회장의 환영사, 한선우 한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엄성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미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만찬은 정옥경 여성위원장과 여성자문위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식사로 제공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음악 연주와 마술 공연이 준비되어 참석자들은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찬 의료복지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1부에는 정정옥 박사(전 민주평통 회장)와 이길자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한국사랑회 연평도 포격 4년차 안보 포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국사랑회(회장 이강원)가 오는 22일 토요일 매드포드 (Medford) 소재 한식당 청기와에서 ‘연평도 포격 4년차’ 안보 포럼을 개최한다.

임원들과 해병대 동지회 임원 및 회원들이 함께 참여한다.

행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스톤 한국사랑회 이강원 회장(339-227-2470)에게 하면 된다.

안보 포럼은 뉴잉글랜드 한인회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15일 토요일 마운트 리버티 (Mt. Liberty, NH)로 정기산행을 간다.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나 전화 (781-572-5898)로 할 수 있다.

준비물은 배낭과 방한복, 장갑, 털모자, 스틱, 식수, 간편중식이다. 등산화 착용은 필수며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울 수 있는 겨울산행에는 아이젠 (Microspikes)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회비는 \$20이다.

산행일정

일시: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장소: 마운트 리버티 (Mt. Liberty, NH)

집결지: 울스톤 공영주차장 (오전 6시 30분), Park&Ride EXIT 2 of RT 93 (오전 7시 15분)

산행 문의는 산악회 카페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뉴잉글랜드 한인 예술가 그룹전 성황

회화, 사진, 공예 등 한국의 정서 물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에 위치한 수레 아트 갤러리(SooRye Art Gallery)에서 개최된 지역 한인 예술가들의 그룹전이 개장 첫 날부터 성황을 이뤘다.

지난 11월 8일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꾸밈없이 담아낸 한인 예술가들의 그룹전 '한국의 조각을 찾다(Exploring Pieces of Korea)'는 뉴햄프셔 지역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회화,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재남 화백의 누드화로,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작품이다.

그 외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는 도자기를 비롯해 한지 공예를 이용한 호롱불 형태의 등, 돌을 깎아 만들어 낸 장승, 설경을 담은 동양화 등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 호응을 얻었다.



좌로부터 김유경 보스톤예술협회 디렉터, 이지인, 신영, 강달래, 김영주, 유수례, 김수정, 김영아, 김병국 보스톤 예술협회 회장

수레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유수례 화가는 "입소문을 들은 지역 미국인들이 전시회 오픈 전부터 문의를 해왔다"며 "그들은 한국 작가들이 뽑아낸 한국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이날 전시장에는 보스톤 예술협회 김병국 회장과 김유경 디렉터도 참석해 작가들을 격려한 한편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윈디 씨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의 문

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고 적극 칭찬했다.

수레 아트 갤러리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한국 작가와 미국 작가들과의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전시회 일정

일시: 11월 8일~12월 20일

주소: 11 Sagamore Road Rye NH 03870

문의: sooryartgallery@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는 지난 11월 화요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로드아일랜드 베테랑스 메모리얼 세 메터리(R.I Veterans Memorial Cemetery)에서 '연례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거행했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박윤주 부총영사는 이날 연설에서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

신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지난달 주정부 청사에서 30년만의 결실을 볼 수 있었던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비 제막행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이루어 낸 경사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은 "이 지역사회의 자랑스러운 참전 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기리는 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기념식이 마친 후에는 애플비 레스토랑에서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좌근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홍지복 이사장, 이강원 재미과학자협회장이 참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주 보스톤 영사단 혁신포럼 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는 지난 12일 영국 총영사관이 주최한 창조경제 및 혁신 관련 포럼에서 한국의 창조경제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빙햄 맥쿠첸(Bingham McCutchen) 법률회사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스위스, 멕시코 등 총 9개국의 총영사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행사의 순서로는 각 패널이 자국의 혁신 및 창조경제 정책과 성과, 보스톤 지역과의 협력 동향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고 간단한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엄 총영사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행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소

개하고 국민 전체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창조경제타운, 첨단 기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인 과기단체 현황과 더불어 뉴잉글랜드 지역에 천 여명이 넘는 일류 한인 과학자, 엔지니어, 혁신 기업가들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투자와 창업 등이 한국의 기술혁신과 성장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영사들은 글로벌 혁신을 통해 전세계의 국가들이 협력함으로써 동반 성장(build together)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300여명의 각국 기업인, 투자자, 학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인 과학자단체 중 바이오산업계 약인 협회(KABIC: 고종성 회장, 남성한 이사)가 지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2일 열린 글로벌 혁신 포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한 엄성준 총영사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물빨래 및 드라이클리닝 앱 등장

배달원 통해 픽업에서
딜리버리까지
보스톤, 케임브리지,
서머빌, 브루클라인
등에서 서비스

역에 진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회사는 차를 소유한 '닌자들'이라 불리는 계약자를 모집해 세탁백을 픽업하고 빨래 후 집으로 배달한다. 고객이 앱을 통해 원하는 30분 간격의 픽업시간대를 지정하면 이 시간대 내에 세탁물을 받아와 세탁을 24시간안에 완료한다. 이후 고객이 원하는 드롭오프 시간대에 배달해준다.

워시오가 서비스를 게시하는 타운은 보스톤을 비롯해 케임브리지, 브루클라인, 서머빌이다. 보스톤 인근이 서비스를 게시한 5번째 도시로 그동안 시카고, 워싱턴 DC, 로스 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서비스를 실시해 왔었다. 워시오는 벤처 캐피탈을 통해 1천 4백만불의 자금을 모아 든든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워시오의 창시자 메츠너는 대도시에 위치한 약 70의 세탁소가 실제 세탁은 다른 곳으로 보내서 해오는 '드랍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자신들의 닌자들을 이용한 서비스가 이들 '드랍샵'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옷을 수거해 워시오 분배 센터에 보낸 후 이를 분류해 데이터 베이스에 넣고 다시 벤더들에게 세탁을 하청한다.

워시오의 가격은 중간 정도다. 양복바지의 경우 \$7.95, 물빨래는 파운드당 \$1.70이다. 딜리버리는 \$35이상인 경우 무료 더 적은 금액 주문의 경우 \$3.99가 부과된다.

워시오의 후원자들은 벤처캐피탈 카나안파트너스를 비롯해 배우 에시톤 커처, 제리 양 이후 공동창시자, 래퍼 나스,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인 스쿠터 브라운과 마돈나, U2의 매니저인 가이 오세아리 등이다.

워시오의 사장 메츠너와 부사장 샘 네들러는 이전 캘리포니아 뷰리토 컴페니라고 불리는 남미 뷰리토 샵체인 사업을 했었다.

hsb@bostonkorea.com

대구 개체수 감소, 연방정부 대구잡이 금지령

상업용은 물론 레저용으로도 그물로 잡는 것은 금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대양기후청이 뉴잉글랜드 특산어인 대구 개체수의 급락을 이유로 매사추세츠 프로빈스 타운에서부터 캐나다 국경까지의 지역에서 대구잡이 조업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향후 6개월간 상업용은 물론 개인들의 레저용이라도 저인망 또는 큰 그물로 대구를 잡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대구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어업 종사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어부들은 정부가 대구 개체수 유지를 위해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으며 대양기후청의 대구 개체수 산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미공영라디오 WBUR의 인터뷰에 따르면, 보스톤의 북쪽 항구인 글러스터에서 대구잡이 어업에 종사하는 조셉 올랜드 씨는 "이것(금지조치)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이제 연말 연시 대구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대구잡이 조업에 나서려던 참이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올랜드 씨는 "지금은 더 많은 대구들이 있고 언제나 대구들이 잡혀왔다. (대양기후청)의 과학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대양기후청은 해덕 대구(haddock)의 수는 증가했으나 카드 대

구(cod)의 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양기후청의 분석가 마이클 루치오 씨는 대구는 충분히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3-4%정도로 아주 적은 양이라고 말했다.

루치오 씨는 대구 수가 충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산란기를 보호하고 수가 증가해 커다란 대구무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연방 규범은 대구잡이금지지역을 확대했으며 우연한 대구잡이 양을 200파운드로 제한했다. 그러나 메인 만의 규모는 방대해서 대구개체 수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구 무리는 서식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상황이 빈번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체수를 파악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 생물학자, 어부 등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대구 개체수를 조사해왔으며 상황에 따라 정부는 조업 금지조치를 내렸었다. 이번 금지조치는 지금까지 대구 조업 금지조치 중 가장 급진적인 조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의 일부는 이 조치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외국인 수입 대구가 로컬 시장을 점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웰슬리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집값 비싸

부동산 회사 콜드웰 뱅커 조사

매물로 나온 4베드, 2베스 대형 집 가격의 평균 값으로 판단
매물 가격 1백 9만불



(\$884,767), 마블 헤드 ((\$875,347), 벨 몬트 (\$866,818), 칼라일(), 니담(\$805,867), 서드베리 (\$790,194) 순이었다.

웨스턴, 도버/셔본, 링컨 등이 제외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발표에 약간 고무될 수도 있다. 이번 집값비교는 정확하게 4베드룸, 2베스 룸을 가진 주택이 10개 이상 매물로 나와 있는 타운만을 갖고 비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타운의 집값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것일 수도 있다.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가장 저렴한 4베드룸 하우스는 스프링필드에 있었다. 스프링필드의 4베드룸은 \$151,000이었다. 이는 보스턴 집값의 4분의 1수준이었지만 미국내에서 가장 싼 클리블랜드 \$65,000에 비해 두배가 넘었다.

한편 미국내에서 가장 비싼 4베드룸 집은 캘리포니아 실리온 벨리 심장부인 로스 알토스(Los Altos, Calif)로 평균 집값은 \$1,960,000이었다. 이어 뉴포트 비치(\$1.90 million), 사라고타(Saratoga, \$1.87 million), 레드우드시티/우드사이드(Redwood City/Woodside, \$1.43 million), 그리고 로스 게이토스(Los Gatos, \$1.30 million) 등의 순이었다. 모든 집들은 캘

미국내 집값 가장 비싼 타운

Los Altos, CA	\$1,963,100
Newport Beach, CA	\$1,904,083
Saratoga, CA	\$1,867,980
Redwood City/Woodside, CA	\$1,430,329
Los Gatos, CA	\$1,307,408
San Francisco, CA	\$1,294,250
Sunnyvale, CA	\$1,267,185
Moraga, CA	\$1,129,300
San Mateo, CA	\$1,093,346
Wellesley, MA	\$1,090,089
Santa Barbara, CA	\$1,040,827
Mercer Island, WA	\$1,013,446
Irvine, CA	\$1,012,254
Stevensville, MD	\$1,009,530
Orono/Medina, MN	\$995,244
Winnetka, IL	\$933,182
Morgan Hill, CA	\$932,959
Cohasset, MA	\$923,889
Greenwich, CT	\$923,690
Westport, CT	\$923,422
Lexington, MA	\$918,600
Chatham Twp, NJ	\$892,489
Hingham, MA	\$891,342
Newton, MA	\$884,767
Marblehead, MA	\$875,347

자료: 콜드웰 뱅커

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

hsb@bostonkorea.com

동성애 참전 군인도 참전 용사 퍼레이드 처음으로 참가 허용

보스톤 시민들도 격려하고 박수 보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정성일 기자 = 매년 베티러스 데이를 맞아 보스톤에서 열리는 퍼레이드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애자 퇴역 군인이 참여했다.

최근 보스톤에서 만들어진 아웃벳츠(OutVets)라는 이름의 단체가 동성애자 퇴역 군인들의 퍼레이드 참가를 주도했다. 아웃벳츠는 성적 소수자(LGBT: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초당파적, 비정치적 단체다.

아웃벳츠의 브라이언 비숍 창립자는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퇴역 군인들이 공개적인 퍼레이드에 단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며 “이제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차별에 반대해서 싸워온 이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다” 라고 말했다.

마틴 윌시 보스톤 시장은 아웃벳츠의 베티러스 데이 퍼레이드 참여에 대해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순간” 이라며 “보스톤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다” 라고 축하했다.

퍼레이드를 구경하던 많은 보스톤 시민들이 이들을 격려하고 박수를 보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미주 한인의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스관



기력회복
감기예방
당뇨 합병증 예방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항암효과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억력 개선



홍삼정(120g) 2병 구입시
홍삼차 (50pack) 무료선물



홍삼정 120g 2병 : \$193 (2달분)

FREE GIFT



50pack

그 어떤 건강식품 보다
안전합니다.

과대광고 제품과 다양한 속설에 주의하세요.
홍삼은 장기섭취가 가능하고 무독한 상약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관장 홍삼은 인삼을 증삼하여 부작용을 줄였으며 체질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일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실내 태닝, 발암 위험 높고 여대생들에게 인기도 높고

태닝 베드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발암 물질
보스톤 인근 대학 주변에
많은 태닝 살롱 영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실내에서도 선풍을 한 것과
같이 살을 태울 수 있는 태닝 베드
(Tanning beds)는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태닝 베드에서
방출하는 자외선은 피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구릿빛으로 태운 피부가 건강해 보
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외선에 노출
되어 피부의 색깔이 변하는 것 자체
가 피부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태닝 베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한겨
울에도 여름과 같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암 물질에
피부를 노출 시키면서 피부에 손상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조사 결
과 미국 내 대학생 중 59%의 학생들
이 적어도 한 번 이상 태닝 베드를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메쓰 메디컬 스쿨에서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교 중 48%
가 교내, 혹은 교외 기숙사에서 실내
태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동 지역
에 있는 학교들은 13%가 캠퍼스 내에
태닝 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태닝 베드에서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보스톤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
분 교내에 태닝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교 밖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많은 태닝 살롱이 영업
중이다. 특히 다운타운과 가까운 보
스톤 대학(Boston University)과 서
픽 대학(Suffolk University) 주변에
태닝 살롱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보스톤과 보스톤 근교에 있는 대학
교들 중에서 반경 1마일 이내에 태닝
살롱이 없는 대학은 유메쓰 보스톤과
브랜다이즈 대학이 유일하다.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캠퍼스 반경 1마일 이
내에 적어도 1개 이상의 태닝 살롱이
있다.

켄모에 스퀘어에 있는 태닝 살롱에
서 일을 하고 있는 케이티 메드라노
는 “확실히 보스톤 대학생들이 가장
주된 고객이다”라며 “대부분 여학
생이다. 가장 어린 손님은 19세다” 라

고 말했다.
미국 피부과 학회의 보고서에 따르
면 태닝 시설을 주로(70%) 이용하는
사람들은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백인 여성이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시설에 가장 많이 태닝 시설을 찾는
것이다. 여고생 중 32%가 졸업하는
해에 태닝 베드를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유메쓰 메디컬 스쿨의 웨리 파고도
박사는 “대학교 근처에 실내 태닝
시설이 존재하면 그만큼 대학생들이
태닝 시설을 이용하기가 쉬워진다”
며 “이는 단기적으로, 혹은 평생에
걸쳐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
험성을 증가시킨다” 고 말했다.

보스톤의 겨울은 길고 일조량은 부
족하다. 그러나 피부암 발생 가능
성을 증가시키는 실내 태닝은 긴 겨울
을 보내기 위한 해답이 될 수 없다.

jsi@bostonkorea.com

폐간위기 BU 일간신문 거액 기부로 위기 모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대학(BU)학생들
이 운영하는 신문 더데일리프리프
레스(The Daily Free Press)가 유
명 인사들의 거액 기부금으로 인
해 폐간 위기에 놓였던 주간 종이
신문을 계속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더데일리프리프레스가 운영난
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하자 보스톤 지역 유명 자동차
딜러인 어니 보크 주니어가
\$50,000을 그리고 유명 보수논객이
자 더데일리프리프레스 출신인 빌
오라일리가 \$10,000을 기부해
\$70,000의 빚을 해결할 수 있게 되
었다. 더데일리프리프레스는 온라
인 공개 기부를 통해 \$17,800을 이
미 모금했었다.

BU 더데일리프리프레스 수석
편집장 카일 플랜츠는 “우리는
이런 도움에 대해 정말 행운이라
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단 2일
만에 (7만불이) 모인 것에 대해 정
말 놀랐다” 고 밝혔다.

44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더
데일리프리프레스는 10일 이번 연
말까지 7만불을 모금하지 못하는
경우 주간 종이신문의 인쇄를 중
단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일간으
로 발간하던 이 신문은 지난 봄 일
간에서 주간으로 발행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기사를 포스팅하는 방
법을 선택했었다.

이로 인해 신문 발행 비용을 급
격하게 줄이고 현재는 운영이 가
능한 체제로 바뀌었지만 과거 몇
년 전부터 적체되었던 인쇄비용이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어니 보크 주니어. 대표적인 자동차 딜러 보크 엔터프라이즈의 대표다. 보스톤 대학 신문에 5만불을 쾌척했다

주간 종이신문 발행마저 위협하게
됐다.

학생들의 독립 벤처 신문으로
프렙(Freep)이란 별칭을 가진 신
문은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웹사이
트인 고 펀드 미 닷 컴
(gofundme.com)을 통해 펀드를
모금하기 시작했다.

BU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뉴욕타임즈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카 교수는 “디지털 신문으로 전
환을 환영하지만 무엇보다 독자들
에게 접근성이 좋고 매력적인 종
이신문의 유지는 꼭 필요한 것”
이라며 기부자의사를 밝혔다.

졸업생들과 교수들의 소액 기부
가 이어졌으며 결국 동문인 오라
일리가 화요일 소식을 듣고 기부
의사를 밝혀 체크가 수요일 아침
도착했다. 또한 지난해 보스톤글
로브 인수여사를 밝혔던 어니보크
주니어도 수요일 기부의사를 밝혔
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
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당,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ACTON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NATICK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공화, 미중 온실가스 감축 합의 "일자리 파괴 정책", 제동걸어

2014 중간선거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합의 소식에 미국 공화당이 반대의사를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심장부와 국가 전체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일자리 파괴(job crushing)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발표"라고 지적했다.

베이너 의장은 "미국이 일자리에 타격을 주고 중산층 가족을 쥐어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통령만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차기대회에서 다수당 리더가 되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미-중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대해 "협의를 읽어본 결과 탄소배출 규정이 우리 내 고향 캔터키주를 비롯해 미국 내 여러 주에 재앙을 일으키는 등



중간선거에 승리한 미 공화당이 미,중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

안 중국은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베이너 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임기 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공화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증가 추세를 역전시키겠다는 내용에 동의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 26~28%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양국 정상회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합의 소식 직후에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요금만 올라가고 일자리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lchung@news1.kr



엔스타도 전기요금 29%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
내셔널그리드는 11월 37% 인상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두번째 큰 전기 공급회사인 엔스타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29%인상키로 함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내 대부분의 지역의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주내 최대 전기 공급회사인 내셔널 그리드는 이미 지난 11월 1일부터 전기 요금을 3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엔스타 전기를 사용하는 주민의 경우 월 평균 약 \$28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엔스타는 주내 보스톤을 비롯 케이프 코드 등 1백만 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나마 위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최근 개스값이 하락해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난방경유(heating oil)가격도 무려 지난해에 비해 켈론당 40%나 하락해 부담이 덜한 상태다.

엔스타 사용 고객들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지난 1988년 전기공급시장의 자유화 이후 최고치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됐다. 킬로와트당 요금은 현재 9.379에서 14.972센트로 오

르게 된다. 엔스타는 이번 요금인상을 파이프라인의 한계로 인해 발전소에 공급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것이 발전 비용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셔널그리드와 엔스타 매사추세츠 주 양대 전기 공급회사가 모두 요금을 올리게 됨에 따라 주내 2백 3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주내 수백만 가정들이 난방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발전소들마저 전기 생산에 까지 천연가스를 사용함에 따라 주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지역의 천연가스 배송관은 수요를 따라갈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배송관의 부족으로 인해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까지 상승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 공급회사들과 전문가들은 향후 신규 배송관이 건축될 때까지 당분간 겨울 전기요금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경제전문가들은 지역의 발전 비용 상승이 최소한 3-4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hsb@bostonkorea.com

공화, 알래스카주에서 승리...상원 53석 확보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상원의석 1석을 추가했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4일 치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이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장악한 가운데 알래스카주는 주내 커뮤니티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 개표가 더 오래

걸렸다. 이날 공화당의 덴 설리번 후보는 마지막 개표 결과 자신이 확실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설리번 당선자는 "미국 상원에서 봉사할 수 있게 나를 뽑아준 알래스카주 주민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확보했다.

한편,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루이지애나주의 개표 결과는 다음달 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측자들은 공화당의 빌 캐시디 후보가 현 상원의원인 메리 랜드류를 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cenes@news1.kr

유럽, 미국, 일본, 한국차 서비스

States Inspection
태양자동차
Repair & Body

고객님은 차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고객님의 꼭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모든 것이 저희 태양자동차에 있습니다.

(T)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 781-827-09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jinis.com/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음원 서비스 '유튜브 뮤직 키' 내주 런칭

- 광고없이 뮤직비디오 보기
- 스마트폰에 다운 소장 가능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튜브가 다음주부터 '유튜브 뮤직 키'(YouTube Music Key)라는 이름의 유료 음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광고에 의존하던 기존의 수익 모델을 유료회원의 월정액을 통한 수익 모델로 전환할 예정이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12일 이 서비스를 통해 광고없이 뮤직 비디오를 보거나, 스마트폰에서 콘텐츠를 내려 받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처음 6개월간은 일부 이용자에 한해 무료 '베타' 버전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프로모션 할인가는 월 7.99달러이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는 월간 9.99달러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유튜브 뮤직 키에 유료회원 등록하면 기존의 음악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뮤직도 추가요금 없



유튜브도 유료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1천만명의 유료서비스 사용자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구글 플레이 뮤직은 스탠더드 사용자는 무료, 무제한 서비스 경우 9.99달러가 부과됐다.

이로써 유튜브는 스웨덴의 스포티파이, 프랑스의 디저, 애플의 비츠뮤직 등에 대항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본격 경쟁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음악 스트리밍에서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으로 발전된 유튜브 뮤직키가 비디오를 제공하지 않는 스포티파이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스포티파이 월정액도 9.99달러다.

미디어리서치는 유튜브 이용자가 월간 10억명에 달하는 만큼 유튜브가 1년 안에 이 유료서비스로 5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기관인 포레스터의 제임스 맥퀘이 애널리스트는 10억 사용자 중 10%인 1억명이 음악팬이며 이 1억명 중 1000만명이 유료서비스 사용자로 남을 것으로 보았다.

유튜브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기있는 무료 음악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ungaungae@news1.kr



알리바바의 창시자 잭 마

알리바바, 싱글데이에 10조원 매출 사상 최대, 블랙프라이데이 넘어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중국 알리바바가 11일(현지시간) 싱글데이(중국어명 '광군제'(光棍節))에 90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날 알리바바는 싱글데이 당일 매출이 총 571억위안(약93억달러·약 1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IDC가 추산한 500억위안을 웃돈 것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주문건수로는 총 2억7800만건으로 이는 알리바바의 일간 배송 물량인 1700만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중 모바일 결제가 차지한 비중은 43%로 집계됐다. 알리바바는 다음 3~5일 사이에 2억 6000만건의 물품배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알리바바는 싱글데이 개장 75초 만에 1억위안 매출을 올렸고, 2분 만에 10억위안 규모의 물건을 판매했다. 지난해에 매출액 10억위안 달성에 6분이 소요됐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이어 38분 만에 매출액 100억 위안(1조7800억원)을 넘었고, 오후 1시31분에 362억위안 어치를 팔아 이미 전년 전체 매출액을 돌파했다.

중국에서는 11월11일을 솔로를

의미하는 숫자 '1'이 4개나 겹쳤다는 데서 착안해 '광군제(이성친구나 애인이 없는 사람을 위한 축제)' 또는 '쌍십이(雙十一)'로 부른다. 이 날을 기념하는 20,30대가 증가하자 상인들이 '홀로 빈방을 지키지 말고 물건을 사면서 외로움을 달래라'고 부추기며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싱글데이는 미국의 대표적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의 매출액을 능가한다. IDC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바바의 '싱글데이' 매출은 57억5000만달러였다. 이는 미국 추수감사절 직후 11월 넷째주 금요일인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데이 다음주 월요일인 사이버먼데이 양일간 매출인 29억달러(지난해)의 두 배 규모다.

특히 알리바바가 2009년부터 싱글데이에 대대적 할인행사를 벌이면서 알리바바의 싱글데이 매출은 천문학적인 속도로 급증,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740%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 업계 경쟁자인 징둥상청, 중국 최대 가전유통업체 쑤닝, 귀메이 등도 다양한 판촉 전략으로 싱글데이 할인행사에 뛰어들어 더욱 경쟁이 치열했다.

담요 덮어주는 푸틴...매너남 or 외교적 결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장면을 담은 영상물이 중국 내에서 당국의 검열에 의해 삭제됐다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사가 11일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전일 오후 베이징 워터큐브

(Water Cube)에서 열린 갈라 만찬장에서 펑 여사에게 담요를 덮어줬고 이 장면은 국영 CCTV로 중계된 이후 중국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미국의 한 언론은 푸틴의 이같은 행동이 매너이기 보다는 외교적 결례라고 강하게 비판기도 했다. 부인과 이혼한 푸틴은 현재 싱글남으로 알려져 있다.

cji@news1.kr



웨이보에 올라온 푸틴의 모습



Come to Chungdahm ReadWrite Vacation Days
Sign Up Now!

No school on November 11th Tuesday?

Vacation Days is an all-day program designed to give students a leg up and have fun during school holidays. Students will work on school assignments,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participate in plenty of creative fun.

When:
Vacation Days is offered the following holidays:
November 11th Tuesday
January 19th Monday
February 16th-20th Monday-Friday
April 3rd Friday
April 20th-24th Monday-Friday

Time:
From 9:00am to 3:00pm

Schedule:
9:00am- 9:30am Homework Hall: Reading and Homework Completion
9:30am- 11:00am Snack and Outdoor Activities or Indoor Exercise
11:00am- 12:30pm ReadWrite Class
12:30pm- 1:00pm Lunch
1:00pm- 1:45pm Homework Hall and Essay Writing
1:45pm- 3:00pm Free Choice Fun - Choose your own creative projects, board games, and more!

Price:
For Chungdahm ReadWrite students: \$60/day
For other students: \$72/day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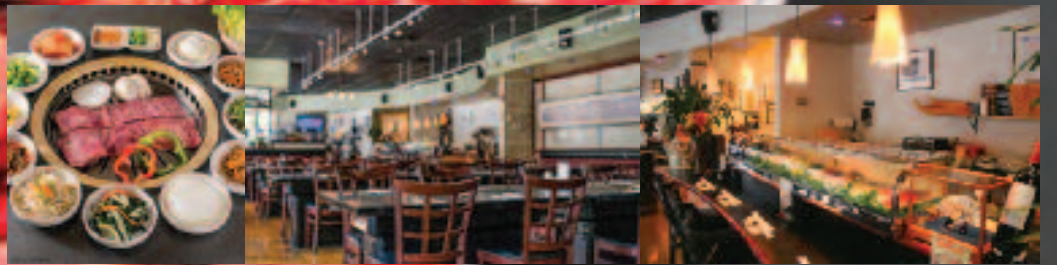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악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박 대통령, APEC 참석 중국 방문 마무리, 한중FTA 최대성과

한·중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미, 중, 일, 러 정상 만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박4일 간의 중국 베이징(北京)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9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후 나흘 간 APEC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에 모두 참석하는가 하면,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토니 애벗 호주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다음 날인 지난 10일 시 주석과의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30개월 간 끌어온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해 향후 협정 발효시 한·중 양국 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질서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최

대 성과

한·중 FTA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맺는 열세 번째 FTA로서, 특히 우리에겐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의 FTA를 맺어 아·태 지역 주요국들을 잇는 'FTA 네트워크'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중 FTA 협상 결과의 구체적 내용이 비준 동의의 담당하는 국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았고, 국민에게도 관련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협상 타결' 선언이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한·중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청와대는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측의 초민감 품목이었던 쌀이 협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실 등을 들어 "역대 최대의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최저 수준의 농수산물 개방 폭을 지켜냈다"고 자평했지만, 다른 일각에선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던 자동차 등의 품목이 양해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연내 협정문 작성과 각 조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의 작업을 마친 뒤 가서 명과 서명,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 내

년 중 FTA를 정식 발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APEC 정상회의 논의에도 주도적 참여 평가

박 대통령은 또 이번 APEC 기간 11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시 주석 주최 정상 갈라 만찬, 그리고 12일 정상회의 세션과 업무 오찬 등의 공식 일정을 이어가면서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교분을 쌓았고, 특히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였던 지역 경제통합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상회의 세션1에선 선도발언을 통해 사실상 이번 회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또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창조경제, 규제 완화 등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어 그 주요 내용을 이번 회의 정상선언문과 부속서 등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FTAAP 베이징 로드맵' 지지 발언은 전날 이뤄진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과 겹치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엔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면서 우리 경제외교의 '중국 경도론(論)'에 재차 불을 지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태 지역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FTAAP은 APEC의 공식 민간 자문기구인 ABAC이 지난 2004년 처음 제안한 것이지만, 최근 관련 논의에서 중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움직임에 대응키 위한 것이라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약식' 진행에 뒷말 무성

이번 베이징 방문 중 열린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까지 국기도, 테이블도, 배석자도 없는 20분 남짓의 '약식' 회담으로 진행되면서 "가까워진 한·중 관계만큼이나 멀어진 한·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다자(多者) 회의 특성상 참가국 정상들이 바쁜 일정을 쫓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한·미 간엔 대화·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에 회담에서 특별히 문제시될 만한 사안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한·미 정상이 짧지만 유익한 대화를 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ys4174@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NOV. 14, 2014 - NOV. 20,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RESH! HEALTHY! "TENDER" SWEET!
 ORGANIC! "SIZZLING" CRISPY! "JUICY"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EARLY BIRD THANKSGIVING SALE

Give thanks a little earlier this season. Share the love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올해 추수감사절을 H마트와 함께 미리 준비하세요.

하루하루 현미 찰쌀
HARU HARU Brown Sweet Rice 15 lbs.
NEW \$19.99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Singo Pear 신고배 박스
\$27.99 box

마트 최고 인기 브랜드 특가세일

Big Brands

SUPER SAVINGS!

Come enjoy unbeatable deals on some of our best selling items!
 2014년 고객이 선정한 핫 브랜드의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NOV. 7 - NOV. 16, 2014



NEW Haru Haru Rice RICE, RICE BABY!

HARU HARU Premium Rice is cultivated to taste delicious. Prepared to be moist and delicious with every bite.

하루하루 마이쌀 신제품 출시!
 [현미 / 찰쌀 / 현미찰쌀 / 현미반 현미찰쌀반]
 다양한 하루하루 쌀로 더욱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밥상을 준비해 보세요~

ALSO TRY OUR NEW SMALL SIZE HARU HARU MILLED RICE (4.4 LBS.)



Mug Cup w/ Wooden Cap & Teaspoon
 나무 뚜껑 머그컵 w/ 티스푼
 All Colors/pkg.
\$2.99

Beef Flank Steak 앞치마 양지 (육개장) lb.
\$6.99

Premium 영광굴비 박스 Salted Yellow Croaker 5.5 lbs.
\$34.99

GWANGCHUN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 김 0.71oz. x 10ea./box
\$9.99

OLITALIA Grapeseed Oil 올리탈리아 포도씨유 34fl.oz.
\$8.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1.75 lbs.
\$9.99

한국에서 만든 하림 삼계탕을 이제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FREE TASTING EVENT: NOV. 14 - NOV. 16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Fuyu 단감 박스 box \$11.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Napa Cabbage 배추 박스 box \$9.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p>	<p>Whole Chicken 통닭 lb. \$1.79</p>	<p>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1.75 lbs. \$9.99</p>
<p>Beef Patella Bone 도가니 lb. \$1.49</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별집 등심 스테이크 lb. \$6.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Scord Cod 생대구 lb. \$3.99</p>	<p>Salted Wild Atka 자반 임연수 lb. \$3.99</p>	<p>TONGTONGBAY Frozen Small Octopus 통통배 싱싱 낙지 1.5 lbs. \$6.99</p>	<p>TONGTONGBAY Premium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8oz. \$3.49</p>
<p>NEW CROP Kyong Gi Rice 경기미 40 lbs. \$29.99</p>	<p>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3.03oz. x 12ea./pkg. \$9.99</p>	<p>HAIOREUM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빛 굴비 2.86 lbs. \$12.99</p>	<p>ALCHAN SOONDAE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알찬순대 1.5 lbs. \$11.99</p>	<p>HAIOREUM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광치 통조림 14.1oz. \$1.99</p>	<p>CHUNGJUNGONE Sand Lance Sauce 청정원 서해안 까나리 액젓 6.6 lbs. \$9.99</p>
<p>Q1 Original Sweet Korean Pancake Mix 큐원 오리지널 찰호떡 믹스 1.21 lbs. \$3.99</p>	<p>KIRIN Steamed Buns 기린호빵 Red Bean/Chestnut/Sweet Pumpkin - 9.52oz. ea./for 2\$3</p>	<p>CROWN Jollypong 크라운 조리콩 6.5oz. \$2.49</p>	<p>ESBENSHADE FARM Grade A Large Eggs 에스벤쉐이드 팜 라지 달걀 18cnt/pkg. 2\$4 for</p>	<p>전기 다용도 요리 냄비 Electric Multi-Purpose Cooker IEC-5001/5L/ea. \$29.99</p>	<p>샤브샤브 핫팟 (분리형) Two Handle Shabu Shabu Hot Pot (Double) 28cm/ea. \$39.99</p>

고위 판·검사의 로펌행 제한 규정 마련됐다

국회 안행위, 법피아 재취업도 제한 공직자윤리법 소위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안전행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안행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이었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조건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퇴직후 취업제한 근거가 전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들의 직무관련 기업 또는 로펌 취업 등에 제동을 걸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퇴직 고위 법조인은 사실상 3년간 로펌을 가

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있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자를 예외로 두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와 정부가 관련 규정 삭제에 반대하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그동안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간의 논의 끝에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결정했다.

앞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제출된 여러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직자윤리법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법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행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했는데 그 기간을 2년에서 1년간 늘린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 연장 뿐 아니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현행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이 밖에도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이번 관피아방지법이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을 두고는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그 동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조

속한 통과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에서는 관료의 취업제한 규정을 상당히 강화시키기는 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독립성을 더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이제라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공직자윤리위를 권익위원회로 옮겨 윤리위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sanghwi@news1.kr

새누리 혁신안 '흔들', 특권 내려놓기 반발

(서울=뉴스1) 여태경, 김영신,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들이 당내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특위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보수혁신특위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정치를 맞추고자 하는, 딱 한가지 기준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보수혁신 관련 문제가 다 입법사항과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특위에서의 의결을 해서 언론에 발표했다"며 "그런 점에 대해 늘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지난 9월 출범한 혁신위는 지금까지 3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동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등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의결·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인기영합적인 혁신안', '과잉금지' 등 반대 의견을 내놨다. 특히 출판기념회 전면금지과 세비 동결 등에 대해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의원은 반대발언에서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혁신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위원회 정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보수와 진보가 우리 사회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이런 치열

한 고민을 보수혁신위가 담아내야 하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이 전부 인기영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지금까지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악세서리 바꾸고 화장 바꾸는 정도"라면서 "혁신이라는 것이 당장 국민들 박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견디면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혁신 과제"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출판기념회 금지까지 한 것은 좀 지나치다. 정가로만 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대체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다이어트가 돼야 하는데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자기 팔다리를 자르면 안된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세연 의원은 "특권 내려놓기가 1단계 진행됐다고 경과보고하는 첫 자리에서 너무 비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혁신이라는 게 다들 불편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가려면 사소한 수정을 가하기보다는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 의원들 중에서는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을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ru@news1.kr

야, '당권레이스', '문재인·김부겸' 변수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대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진영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과 비노(비노무현)진영의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이번 전대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친노를 제외한 새정치연합 제 세력들은 가장 강력한 당권주자인 문 의원의 출마를 미리 예상하고 곳곳에서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문 의원 자신은 출마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당 안팎에선 문 의원이 자신의 출마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 비대위원으로 참가한 자체가 사실상 당대표 출마를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력을 끼칠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관여하는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문 의원을 비롯해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세균, 박지원 의원 등 계파 수장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의원이 최근 당내 상황의 심각함을 깊게 인식하고 "친노 해체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1년 안에 당을 바꾸지 못하면 집권이 불가능하고 존립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당권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의원의 당권 출마를 전제로 한 비노(비노무현)진영의 견제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

다. 특히 당내 중도·온건파 의원 모임인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항마'로 수도권 3선 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을 추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갑과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각각 40%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주의 벽을 깨기 위한 그의 노력이 당 안팎에서 긍정적 평가를 이어지고 있다. 비노 일각에서는 비노진영이 연합해 '문재인 대항마'로 김 전 의원을 추대한다면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당권·대권 분리 주장도 문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당헌 25조2항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도체제를 둘러싼 방식도 각 계파가 이해관계가 달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문 의원의 경우 현행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별도의 경선으로 뽑아 당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다른 당권 주자 진영에선 하나의 리그로 경선을 치뤄 다수 득표자 순대로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순수집단지도체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jy1@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세월호 판결...여 "법 감정과 달라" 야 "살인혐의 충분"

(서울=뉴스1) 여태경,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11일 "국민의 법감정과 다르다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이 선장 등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본인들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죄값은 어떤 것으로도 갚기 힘들 것"이라며 "어떤 벌을 받더라도 유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할 것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하다"며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흥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탈리아 유람선 콩코르디아호에서도 선장이 도망쳤는데 그 경우 선장이 2697년 형을 구형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항소심이나 이후에는 조금 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 선장과 선원들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심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항소심에서는 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살해하게 된, 역사상 어떤 것보다 무모했던 행위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aru@news1.kr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무죄' 논란

유기치사 등 4개 혐의 유죄...

법정 최고형 선고

"선장 퇴선지시 내렸다"

항소심 공방 계속될 듯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300여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조계 반응이 뜨겁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살인 혐의 피고인인 기관장 박모(54)씨의 승객 살인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조리부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원들에게도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5년~20년까지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선장의 경우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원범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유기치사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징역 36년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그만큼 재판부의 엄벌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우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을 내린 것 같다"며 "이 선장의 연령에 징역 36년은 무기징역과 다름 없는 중한 벌"이라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이 선장이 광주지법경찰청 구치감으로 들어서고 있다

만 이럴 때일수록 법원은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향후 항소심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유가족들은 "이 선장 등이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도VTS 등과 교신으로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가 인정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좀 더 넓게 인정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계속해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선장의 승객들에 대한 퇴선 지시를 너무 쉽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이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 방송 명령을 지시했지만 응답이 없었

다"고 주장하고 다른 선원들은 "선장의 퇴선방송 명령 지시가 없었다", "선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듣지 못했다"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충분히 인정될거라고 봤는데 단순 유기치사로 인정해 굉장히 아쉽다"며 "이 선장 등이 '가만히 있으라'면서 탈출할 당시 '승객이 죽어도 좋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인죄의 경우 '선장 등이 구호조치를 했으면 0층에 있었던 승객 00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누가 사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법률적 난점도 많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당시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선장이라면 승객이 몇 명이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모를 리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junoo5683@news1.kr

세월호 유가족 "진실규명·엄중한 처벌 기대 무너졌다"

(서울=뉴스1) 성도현, 윤용민 기자 = 11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자로 기소된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법원이 살인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재판부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조리부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 나머지 선원들은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유가족들은 실망감을 애써 감추려 는 듯했다.

단원고 2학년 5반 고(故) 이창현군의 아버지 이남석씨는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건데 그에 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보고 힘이 빠지지만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형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형을 받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2학년 7반 고(故)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씨 역시 "누군가는 제대로 해줄 줄 알았는데 기대가 무너졌다"며 "세월호 사고이

후로 모든 것에 대해 기대를 접었다가 후시나 했는데"라고 말하며 말을 흐렸다.

실제 재판도 몇 번 방청한 권씨는 "이 선장 등이 반성하기보다는 빠져나기려고 한다는 것을 눈빛에서 봤다"며 "이번 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에 시작된 1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가족대책위는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렸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수백명을 희생시켰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인들에 대해 이렇게 밖에 처벌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공판 관련,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비교하며 "당시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내리지 않은 것이 세월호 비극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는 돈과 안전을 바꿔치기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게 엄중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hspeople@news1.kr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국내/국제 항공권 할인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하와이, 캐나다, 알래스카 등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4262(HANA)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금통위 기준 금리 2% 동결, '만장일치'...환율, 금리로 대응못해

경기 회복세 부진, 엔화 약세 심화 등이 작용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사그러들 것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급격한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일본과 경합도가 큰 업종에 타격일 것"이라면서도 "환율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통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가 된다면 보통 12월에는 금리인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나타낸 A위원이 지난달에 이어 금리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위원이 친정부 인사라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연내 추가인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금리동결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급격한 엔화 약세에 대해 "엔화 약세폭이 더 크게 확대된다면 그에 대한 영향이 영업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경우 일본과 경합도 큰 업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엔화 약세도 무한정 이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 문제나, 수입업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한은 금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2.0%에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8월 열린 금통위에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25%로 낮춘 이후 지난 10월 두달 만에 또다시 금리를 2.0%까지 인하했다. 이는 사상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였다. 앞서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세 부진, 엔화 약세 심화 등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 여부에 주목한 바 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제기될 경우 향후 금리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키로 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고 밝히고, 일본중앙은행(BOJ)의 대규모 추가

의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약세도 한계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엔화 약세가 그렇게 까지 우려하는 상황까지 안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엔화약세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상 금리정책으로는 환율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 총재는 "주요국 경기상황이나 국제자금흐름 등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외에 다양하다"며 "우리가 보는 것은 환율 자체가 아니라 환율이 급변했을 때 물가와 경기에 미치는 영

향"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8월과 10월 단행했던 기준금리 인하의 과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금리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a@news1.kr

"쌍용차 정리하고 정당한 법원 파기환송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의 복직의 길에 암초가 드리워졌다.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사태에 대해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2009년 6월8일자로 해고된 153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그대로 인정되게 됐다.

쌍용차는 2008년 판매 부진과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사측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강경 파업에 나섰다.

극심한 노사 갈등 속에 쌍용차

는 결국 희망퇴직자와 무급휴직자들을 제외한 165명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했다. 이중 쌍용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던 노씨 등 153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1심을 뒤집고 해고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

서울대 교수에서 전 검찰총장까지, '갑'의 잇따른 성추행

서울대 교수는 제자
전 검찰총장은 골프장 직원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부하 직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 전 검찰총장, 전직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사회 고위층들의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수업을 받고 있는 제자나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골프장 직원, 부하 직원 등 '乙'의 관계에 놓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모(54) 교수가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K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강변 유원지 벤치에서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에 참여해 업무를 돕고 있던 인턴 여학생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현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의 수사를 받고 있다.

K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같은 보도가 나온 뒤 몇 시간만에 서울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스누라이프'에 K 교수의 성추행·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익명의 제보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는 상태. 피해자라고 밝힌 한 학생은 "'보고 싶다'는 등 남녀 사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2년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K 교수의 행동은 상습적인 행동이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 본부 측은 해당 단과대에 K 교수에 대한 강의 중단을 검토해줄 것만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

또 12일 오전에는 전직 검찰총장 A씨가 경기도 모 골프장의 안내데스크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여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여직원은 고소장을 통해 A 전총장이 지난해 6월 늦은 밤, 여직원 기숙사로 들어와 샤워하던 자신을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강제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전총장은 "B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위로하려고 찾아가던 것 뿐이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 경찰은 조만간 A 전총장을 불러 사



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오후에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냈던 서울대 의대 교수 윤모(65)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윤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성추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직한 후 지난 9월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씨는 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내부에 알려지자 지난 9월 사퇴했다. abilitykl@news1.kr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샐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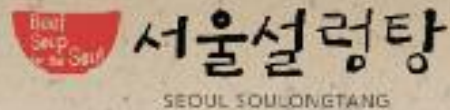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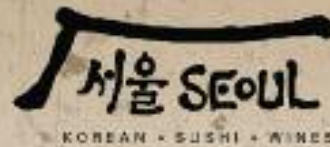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 **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빛교회
NewLightKC.org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Parish in Boston, MA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클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북부보스톤한인교회
Hanboston

**북부보스톤한인교회에서
사역자를 초빙합니다.**


북부보스톤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동역하실 2-3명의 사역자를 모십니다.

주일학교 (영어로 예배 인도가 가능한 분),
행정, 청장년, 예배, 교육 등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와 같이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northbostonkumc@gmail.com
전화: 978-470-0621
마감일: 11월 23일

사역은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근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소납은 한국에서 온 무초(無超)라고 합니다. 15년간 참선 수행을 하고 이제는 붓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외국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 달여의 시간을 머물면서 이곳 현지인들이 불교와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포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보스톤에서 한국 불교(선불교)를 알리고,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참선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참선 법회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크건 작건 조그만 공간과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정집의 마루나 방에서도 가능합니다.)
같이 법담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참선 수행을 하며, 좋은 도반의 인연을 만들고, 자등명·법등명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연이 되면 한국 불자님들과 미국 불자님들과 함께 이곳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이력**
출가전: 동국대(경주) 철학과 학사
동국대(서울) 불교학과 석사
제2기 국선도 생활 강사
출가후: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 선원 졸업
승광사, 동화사, 법주사, 월정사 등 10년간 선원에서 수행, 산속 토굴에서 5년간 개인 수행

연락처: mucho007009@gmail.com, 010-3560-7009
저는 지금 Cambridge Zen Center (199 Auburn St. 하버드와 MIT중간에 위치)에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무초 합장.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 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츠의 다음 상대는 AFC 남부 1위 콜츠

패트리어츠 원정경기 약세 이번엔 극복할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보스톤의 낯선 날씨에도 불구하고 홈경기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자랑한다. 그러나 다음 경기는 원정 경기인데다가 날씨의 변화와 상관 없는 실내 경기장에서 갖게 된다.

패츠의 5연승 후 한 주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진 패트리어츠의 다음 상대는 AFC의 또 다른 강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다. 6승 3패를 달리고 있는 콜츠는 AFC 남부지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AFC 전체에서는 패트리어츠와 브롱코스에 이어 3번째로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는 콜츠 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우리는 날씨를 홈경기의 최대 이점으로 이용해 왔다”며 “우리는 대부분의 다른 팀들보다 날씨의 이점을 잘 활용해 왔기 때문에 악천후 속에서 경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래디와 패트리어츠가 상대해야 하는 콜츠의 홈경기장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은 여담을 수 있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브래디는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한 적이 2번 있는데, 모두 패했다. 2009년 정규시즌에 페이튼 매닝이 콜츠의 쿼터백으로 있을 당시 패한 적이 있고, 2011년 수퍼볼에서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패배했다.

브래디는 포스트시즌을 포함하여 실내 경기장에서 4승 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브래디의 통산 승률이 76.5%(173승 53패)라는 걸 감안하면 실



프로 3년차 쿼터백 앤드류 렉은 이미 콜츠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

내 경기장에서의 승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브래디와 패트리어츠는 홈경기와 원정경기의 승률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브래디가 무릎 부상에서 복귀한 2009년 개막전 이후 패트리어츠는 홈에서 42승 3패를 기록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원정경기에서는 26승 18패를 기록했다.

어느 팀에게나 원정경기는 힘든 법이다. 패트리어츠의 타이트엔드 랍 그

롱코스키는 “여행, 관중들의 소음, 다른 시간대에 적응 등 (원정경기) 여러 불편한 점이 있다”며 “그러나 이미 많은 경험을 해왔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콜츠는 현재 NFL에서 공격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패싱 야드와 전체 야드, 경기당 득점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패트리어츠는 올해 들어 패스 수비가 부쩍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치프스 전에서의 대패 이후 최근 5연승을 달릴 동안의 평균 득점은 40.2점으로, 이 기간 동안은 리그 최고의 득점을 올렸다.

패트리어츠의 와이드리시버 줄리언 에들먼은 “그들은 (경기장)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이용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시속 35마일의 바람과 눈비 속에서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재미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패트리어츠의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건 상대 쿼터백이 앤드류 렉이기 때문이다. 렉은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콜츠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었지만 패트리어츠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렉은 패트리어츠와 맞붙었던 이전의 2경기에서 4개의 터치다운과 7개의 인터셉션, 58.2의 패서 레이팅을 기록했다.

jsi@bostonkorea.com

휴랍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랍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랍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4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500만원	실루엣 리프트 300만원 200만원
안면윤곽술 (광대) 450만원 350만원	안면윤곽술 (사각턱) 450만원 350만원	안면윤곽술 (턱골) 450만원 350만원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8월 ~ 11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광(光)

“악(惡)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光)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But whoever lives by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he has done has been done through God.” - 요한복음 3:20-21

해성 표면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착륙한 로제타 호의 필레(Philae) 탐사 로봇이 안정 상태를 찾았다고 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CNES)가 밝혔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필레의 배터리가 잘 작동하고 전력이 공급받아 안정적으로 작동 중” 이라고

장 이브 르 갈 CNE소장은 “필레에 대해 3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성에서 첫 밤을 보낸 것” 이라 밝히고 또 “활성화된 태양전지 패널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영구적으로 필레와 접촉하고 있다” 는 것.

11월 13일 유럽우주국(ESA)는 필레가 지구로 전송해온 사진도 공개했는데 착륙 당시 필레는 두 차례 튕긴 후 세 번째 착륙했었으나 현재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한다.

한편 한·중·일(韓·中·日) 삼국간의 냉기에 햇빛을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 넣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별안간 제안했다는 것은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현안을 3국이 주도해서 해결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 이슈에 대해 韓中日이 앞장서서 해결을 주도하자는 숨은 뜻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의도적인 목적으로 요구하는 韓·日 정상회담을 전략적 묘수로 대응하는 빛도 엿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정상회의 중 “지난 9월 서울에서 韓中日 3국 고위관리회의를 열었는데 이어 머지않아 곧 韓中日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다며 이를 토대로 韓中日 3국 정상회담도

열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韓中日 3국 정상회담 제안은 때맞춰 나온 “절묘하면서도 전략적인 판단으로 분석” 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적 고립론까지 들먹이며 다소 외롭게 몰려 있는 우리의 외교정책(?)를 새로 뚫어 불려는 ‘숨은 뜻’ 으로 풀이 되기도...

북한은 통미봉남(通美俸南) 전략을 펴고 있는데다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대북대일(對北對日) 정책에서 현실적인식이 감안됐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수용할 수 없지만 중국과 함께하는 3국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총리에 휘말리지 않고 한국외교의 포용성 또는 유연성을 과시하려는 숨은 의도를 대내외에 깔아 보려는 암시인 것 같기도.

정체된 한·일 외교에 韓中日 3국외교로 “아베총리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한국외교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 로 삼아야 한다고.

외교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란 큰 틀을 위해서 걸끄러운 한일관계를 “韓中日 관계로 우선시(優先視)하는 전략” 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 국내신문과의 보도자료에서 “지난 2년간 ‘일본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고 고집해 왔는데 이제와서 우리가 먼저 한·일간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국내정치의 비판을 받

게 된다” 면서 “중간 단계로 韓中日 장관급 회담을 먼저하고 조건이 맞으면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피하려는 것” 이라고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의 韓中日 정상회담 제안은 정체된 한·일 외교와 남북한 외교에 ‘새 빛’ 을 품고 있다.

光: 明意명의: 빛 광 또는 景也:경치 광. 光자는 딱 상하 두 글자가 합성됐다. ‘小’ 와 ‘兀’. 小: 微也徠隘 미아래에(또는 ‘액’) 그리고 兀: 高貌- 우뚝할 올.

여기서 小는 하늘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들 세분 하나님 가족들이 ‘뚝할 올’ 곧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성부(聖父) 하나님, 성령(聖靈)님 그리고 성자(聖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동행(同行) 동재(同在)하신다.

하여 성경은 그 시작이 빛(光)으로 시작해서 천지만물이 존재하고 빛과 함께 영생(永生) 또는 영사(永死)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 the first day. - 창세기 1:3-5

천지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

빛(光)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가라사대” 는 히브리 원어로 “아마르(אמר)” 즉 “말하다” 의 뜻이다. 본문에서는 “명령하시다” 의 의미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신(神)이심을 기술했다.

문제는 이 光이 성경 전체에서 32회나 석권한다. 구약에 15회 신약에 17회에 걸쳐 빛이 언급된다. 빛의 근원에서부터 글자가 그리는 틀을 보면 光即聖三位(광즉성삼위).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룩하신 세 분이 光을 그려내고 있으시다는 것.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가족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永生)하는 빛이 되려면.

“나(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But I tell you: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이와 같이 한 족하늘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이로심이라: that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 in Heaven. He caus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 마태복음 5:43, 44

말을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모르면 光을 보아도 비추임을 받아도 무슨 光인지 모른다는 뜻. 물론 사랑도 지혜도 그 참 뜻을 알 수 없단다. 안다면? 거짓말일 뿐.

“보스톤엔 보스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에이전트 그룹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문화가정 상담 / 20여 개 언어 / 24시간 상담 서비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180,000 Salem, MA Dard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99,000 Northampton, MA Restaurant w/ liquor license Well maintained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5 November 14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62

“커질수록 진실되게”
대진자동차

105 Great Road, Bedford, MA 01730
781-275-0384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올해의 마지막 단풍이 수놓아진 한적한 베드포드의 길 위에 아담한 한인 정비소가 자리잡고 있다. 대진자동차(대표 신대용)는 워터타운(Watertown)에서 5년간 사업을 운영하다 지난 8월 베드포드로 새롭게 이전했다.

15년간 자동차 정비사로 일해온 대진자동차의 신대표는 “커질수록 진실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대진(大眞)자동차의 모토이자 이름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정비 일을 함께 하던 동생의 이름(신진용)과 본인의 이름이 한 자씩 들어간 이름이지만 무엇보다 진실되고 떳떳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람이 묻어있는 듯하다.

현재 대부분의 고객은 외국인이지만 대진자동차를 찾아 일부러 멀리서 오는 한인 고객들도 제법 된다고 한다. 실제로 정비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대진자동차를 기억해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러 오는 손님을 만날 때라고 한다.

특히 타 주로 떠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고객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그 동안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 가장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는 것이 신 대

표의 이야기다.

신 대표는 누군가 차를 맡기러 올 때에는 정비사와 고객의 관계지만 마트 등의 다른 일상적인 장소에서 만났을 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겨울철은 자동차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다. 신 대표는 “요즘은 팅스키빙이나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멀리 여행을 떠나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며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는 자동차 점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장거리 여행 전 오일 체인지를 하러 오는 손님들은 브레이크나 와이퍼 등의 소모품도 점검하고 리킹(Leaking)하는 곳은 없는지 각종 플루이드 레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윈터 타이어(Winter tire)의 필요성에 대해 신 대표는 “특별히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지만 봄이 되었을 때는 윈터 타이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기 점검은 3,000마일에서 5,000마일마다 한번씩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

신 대표는 “자동차 정비사는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라며 “차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일 차를 운전하는 손님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한다. 정비사의 역할에 대해 그는 “문제가 감지된 차량을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 고치는 일을 담당



할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마샬(Marshall), 홀푸드(Wholefoods), 베드포드 공공도서관,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 수리 및 점검을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아늑한 사무실에서 음료를 마시며 기다릴 수도 있겠다.

대진자동차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4시에 닫고 일요일은 휴무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철학자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화포럼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수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베링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톤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3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교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종은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781-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17-860-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북경반점1	617-623-7220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사정신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치료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파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이덴탈그룹	781-2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청기와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경험자 구합니다. (풀타임/파트타임)
T. 781-424-2872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 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미용가위, 애견가위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가위 가는 기술 전수합니다.
T. 917-513-7771

딜리버리 및 영업사원 모집

매사추세츠/뉴햄프셔지역 가족세탁 공장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딜리버리 및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연령제한 없음, 미니밴 소유자.
TEL 929-600-3512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 [매 매]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가게
연매출 :\$340,000
순이익 :\$160,000 이상
매매가 :\$160,000
루지애나 주 뉴올리언즈 지역
C. 504-729-8688
T. 985-646-1771

N [구인]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실 사이딩쿠루 구합니다.
T. 847-307-1812

벌링턴에 위치한 일식집(산수갑산)에서 주방보조 구함 (풀타임)
T. 718-690-00891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세탁소 팝니다. 부유한 동네 Drop-Store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T. 857-636-2611

N [매 매]

만테나 빌링스에서 가족같이 일하실 성실한 마사지사 구합니다.
안전한 곳이고 숙식제공 되고 수입 보장 함.
T. 406-259-6211

N [호텔직원구인]

사바나지역(Savannah, GA)
.룸서비스(여자)
.하우스맨(남자)
.오버나이트서비스맨(남자)
.게스트서비스맨(남자)
.전직원 숙박제공
.시간당 \$9.50부터
.주 40시간제
T. 678-689-7751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 [마사지구인]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 케비넷도어, 트림, 유 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다 지역 포함.
T. 952-292-609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보컬리스트' 규현의 진면목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규현이 슈퍼주니어로서, 예능에서 보던 모습이 아닌 보컬리스트로서 능력을 과시했다.

규현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 무브홀에서 첫 미니앨범 발매 기념 가을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같은 팀인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과 려욱, 규현과 절친한 친구인 동방신기 최강창민이 참석해 그를 응원했다.

규현은 가을음악회를 갖기에 앞서 이날 자정 첫 미니앨범 음원을 공개했다. 타이틀곡 '광화문에서'는 각종 음원차트 1위에 올랐다. 규현은 음원차트 1위는 물론 대중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에 "이럴 줄 누가 알았겠나"라며 "너무 감사드린다. 많은 팬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가을이 도와준 것 같다"는 말로 행복 심정을 드러냈다.

슈퍼주니어 중 첫 솔로 주자인 규현은 "부담이 되긴 했는데 음원도 괜찮고 대중의 반응도 좋은 것 같아서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고 한 뒤 슈퍼주니어 멤버들 반응에 대해 "단체 카톡방에서 사랑한다고 난리치더라"며 해외에 있는 멤버들도 음악을 듣고 스트리밍을 한 인증샷을 보내줬다고 털어냈다.

규현은 '나의 생각, 너의 기억', '사랑이 숨긴 말들'을 들려주며 청중들을 질은 감성에 빠지게 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하고 최강창민이 작사한 '나의 생각, 너의 기억'에 대해 "3년 전 솔을



먹고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랐다"며 "창민이와 자주 만나 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잘 통했던 것 같다"고 작업 과정을 털어냈다.

규현은 리메이크 곡인 '깊은 밤을 날아서'로 잠시 분위기를 전환한 뒤 가장 기대감을 모으던 타이틀곡 '광화문에서'를 라이브로 열창했다. 그는 아픈 이별 이야기를 그린 가사 내용과는 상반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정을 실은 노래를 들려줬다.

이날 규현은 팀 활동에 다소 가려져 있을지도 몰랐던 자신의 보컬 능력을 마음껏 과시했다. '불후의 명곡' 출연 등으로 규현의 보컬 실력을 아는 대중도 있었지만 솔로 앨범을 통해 이번

에야말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듯 감성 넘치는 목소리로 듣는 이들의 마음에 와닿는 노래를 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목소리와 발라드에 최적화된 듯한 감성으로 선배들을 위협하는 보컬리스트의 탄생을 알렸다.

규현은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도 있고 걱정된 팬들도 있을텐데 2년동안 준비한 앨범인 만큼 팬들과 대중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끝인사를 했다.

한편 규현은 오는 14일 KBS2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광화문에서' 방송 활동을 시작한다.

ppbn@news1.kr

휘성 전국투어 콘서트

걸스데이·바비킴 등 지원사격

(서울=뉴스1스포츠) 이한솔 기자 = 가수 휘성의 단독 콘서트 '휘쇼' 열기가 뜨겁다.

지난달 18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개최된 휘성의 전국투어 콘서트 '휘쇼'는 현재 광주, 경기 수원 공연까지 성료됐다.

휘성의 공연에는 선배 가수들과 걸그룹, 래퍼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지원사격에 나서 그의 무대를 빛냈다.

걸그룹 오렌지카라멜을 비롯해 지나와 시크릿의 송지은, Mnet '쇼미더머니2' 출신 제이권이 속한 3인조 혼성그룹 럭키제이, 힙합 듀오 배치기, MBC '위대한 탄생' 우승자 출신 한동근 등이 '휘쇼'를 거쳐갔으며 앞으로 더욱 쟁쟁한 특급 게스트들이 휘성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오는 22일 예정된 인천 콘서트에는 가수 케이윌이, 12월6일과 7일 개최되는 서울 콘서트에는 범키와 걸스데이, 킷스, 바비킴까지 총출

동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내달 13일 대구를 거쳐 20일 청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정된 경기도 일산 공연에서는 가수 백지영과 최근 '끈적끈적'으로 컴백한 걸그룹 헬로비너스가 연이어 지원사격에 나선다.

한편 휘성은 전국투어 공연과 더불어 오는 12월5일부터 경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뮤지컬 '조로'의 앙코르 공연도 이어간다.

hslee61@news1.kr



이승철, '그날에' 무료 배포

"무언의 압박과 처사에 굴복할 의사 없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가수 이승철의 통일송 '그날에'를 무료 배포가 화제다.

이승철의 소속사 진엔원뮤직웍스는 12일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어느 누구든 무상으로 '그날에' 음원을 다운로드 받거나 배포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승철은 이날 오후 블로그를 통해 '그날에' 음원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그날에' 음원은 합창 버전과 이승철 솔로 버전, 영어 버전까지 모두 세 가지다.

이승철은 소속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국 어느 나라 사람 모두가 이 음원을 마음껏 쓰고 가지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의 아름답고 멋진 땅 독도, 그리고 통일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 스스로는 우리나라 우리 땅, 그리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무언의 압박과 처사에 대해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향후 독도와 관련된 일에 더 분명한 소리를 내기로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이승철은 지인의 초

대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4시간가량 억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승철 '그날에' 무료 배포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승철 '그날에', 들어봐 야지", "이승철 '그날에', 생각이 멋지네요", "이승철 '그날에',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uyoung0403@news1.kr



"나의 에너지원 유재석·김국진"

김제동 "보면 위로가 된다"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방송인 김제동이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유재석과 김국진을 꼽았다.

김제동은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열린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6' 기자간담회에서 "내게 요즘 가장 큰 에너지원은 김국진이다. 그냥 보면 위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국진과 둘이서 스크린 골프도 치고 라면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공상맞지 않다. 치열하게 얘기를 할 때도 있다. 그렇게 둘이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재석과 사우나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에너지원이 된다. 이성애 받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친구 선배들과의 유대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제동은 지난 2009년 첫 공연을 시작해 올해 초까지 다섯번째 시즌, 197

회의 공연으로 21만3400명의 관객과 만났다.

매 시즌마다 특이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동의 장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콘서트브랜드를 구축해왔던 김제동은 이번 시즌6 공연에서 관객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 시즌6'은 오는 12월4일부터 21일까지 백암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오는 2015년 3월까지 전주, 대구, 창원, 광주, 청주, 울산, 성남, 부산, 대전, 인천, 제주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도 진행된다.

lee1220@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1월 3일 ~ 11월 9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2.4%



2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5.0%



3위 KBS2 일일드라마 **빠꾸기 등지** 22.6%

- | | | | |
|----|------|---------------|-------|
| 4 | MBC | 주말특별기획(전설의마녀) | 17.0% |
| 5 | KBS1 | KBS9시뉴스 | 16.9% |
| 6 | KBS2 | 해피선데이 | 15.7% |
| 7 | KBS2 | 개그콘서트 | 15.4% |
| 8 | MBC |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 15.0% |
| 9 | SBS |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 14.7% |
| 10 | MBC | 무한도전 | 14.2% |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 | | |
|----|-----------------|-------|
| 01 | 내가 그리웠니 | MC 몽 |
| 02 |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 | MC 몽 |
| 03 | 마음 단단히 먹어 | MC 몽 |
| 04 | 죽을만큼 아파서 Part.2 | MC 몽 |
| 05 | 도망가자 | MC 몽 |
| 06 | New York | MC 몽 |
| 07 | 고장난 선풍기 | MC 몽 |
| 08 | 헤븐엔딩 | 에픽 하이 |
| 09 | Whatever | MC 몽 |
| 10 | 12시 30분 | 비스트 |

숫자 퍼즐 (Sudoku)

		3		8	4	6	
			9	4	3		
	6		2		8		
6			8	5			
1							2
			1	7			8
		6		5			3
		4	3		6		
	3	5	8			1	

11월 16일 - 11월 2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큰 행복감과 즐거움</p> <p>● 운수: 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춰주니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 금전: 그동안 애쓰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 애정: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소띠 이해하는 시선으로</p> <p>● 운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을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 금전: 남에게 믿고 맡기 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니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범띠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p> <p>● 운수: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마음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욕심만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올인해야 합니다. ● 애정: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용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 힘이 듭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p>
<p>토끼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p> <p>●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 애정: 서로간의 애정이 더욱 돈독해지니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20일 길일. 19, 22일 주의.</p>	<p>용띠 생각을 바꿔서 보면</p> <p>● 운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금전: 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저런 공리를 하게 됩니다. ● 애정: 한번 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1,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뱀띠 자극제로 여겨야</p> <p>● 운수: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도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원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로 여겨야 합니다. ● 금전: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 애정: 사랑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1일 주의.</p>
<p>말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p> <p>● 운수: 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물아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금전: 얼마나 느긋하게 잘 참아내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 애정: 어찌 보면 자잘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챙겨주는 마음에서 서로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8, 20일 길일. 16, 22일 주의.</p>	<p>양띠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p> <p>● 운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훌거운 마음으로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니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6, 19일 길일. 17일 주의.</p>	<p>원숭이띠 주위를 잘 살펴야</p> <p>● 운수: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별다른 성과도 없이 끝나는 것 같아서 애쓰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 금전: 바라는 만큼의 수입이 아니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재물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7, 22일 길일. 16, 18일 주의.</p>
<p>닭띠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p> <p>● 운수: 남에게는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 금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 애정: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으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격이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개띠 희망의 끈을</p> <p>● 운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나이에 구애를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금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 애정: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음이 가다가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19일 길일. 17, 20일 주의.</p>	<p>돼지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p> <p>● 운수: 필요를 느끼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해줄 것입니다. ● 금전: 급히 서둘러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애정: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허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20일 길일. 17, 18일 주의.</p>

'슈퍼스타K6' TOP3, 캐리커처 공개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준결승 무대를 앞둔 '슈퍼스타K6' TOP3 박진언, 김필, 임도혁의 그림 실력이 공개됐다.

Mnet '슈퍼스타K6' 제작진은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박진언, 김필, 임도혁이 서로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박진언은 김필과 임도혁을 지도하며 '1분 캐리커처'에 도전했다. 어눌한 듯 능청스러운 TOP3의 모습이 웃음을 유발하는 가운데, 서로의 모습을 그린 캐리커처를 통해 TOP3의 그림 솜씨도 엿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세 사람이 서로의 특징으로 꼽은 TOP3 캐리커처 포인트이다. 임도혁은 박진언의 하관과 목젓, 박진언은 김필 특유의 씩씩대는 표정을, 김필은 임도혁의 양증맞은 웃음을 각각의 포인트로 잡았다. 오고가는 유쾌한 도발 속에 서로의 특징을 정



확하게 짚어내는 세 사람의 모습에서 남자들의 진한 우정도 엿보인다.

제작진은 "세 사람이 그린 캐리커처 3점은 금주 '슈퍼스타K6' 생방송의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경품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는 TOP3의 색다른 모습이 화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그림에 이어 TOP3의 요리실력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퍼스타K6'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방송된다.

reddgreen35@news1.kr

윤상 아내 심혜진, 청순 미모 알고보니 공채 탤런트 출신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가수 윤상의 아내 심혜진이 뛰어난 미모를 선보여 화제다.

10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서는 윤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윤상의 아내 심혜진은 영상편지를 보내왔다. 공개된 영상 속 심혜진은 윤상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만나서 처음 인사할 때 '제 짝이 팬이었어요' 한마디에 오빠의 뒤끝, '너는 내 팬이 아니잖아' 뒤끝이 17년 넘게 계속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오빠의 팬은 아니었지만, 난 이제 오빠의 모든 모습을

다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팬이 아닐까 한다"며 "그러니까 이제는 '넌 내 팬이 아니잖아'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심혜진은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994년 HBS 탤런트 공채 1기로 선발돼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1998년 윤상의 뮤직비디오 '언제나 그랬듯이'에 출연하면서 윤상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02년 결혼했다.

js753@news1.kr



수지 악플러 고소, JYP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수지가 악플러를 고소했다.

12일 저녁 8시55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수지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악플을 보낸 누리꾼을 고소한 내용이 다뤄졌다.

수지 소속사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올초부터 수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을 보냈다. 수지는 묵묵하게 참았지만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제가 죽으면 좋겠군요"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했다.

수지 소속사 JYP 측은 결국 "허위 사실 유포나 공갈, 협박 등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이 누리꾼을 경찰 고소했다. 경찰 측은 "수사에 착수했고 자세한 경과는 말할 수 없다. 죄가 있으면 처벌하는 거다"고 밝혔다.

고소 이후 이 악플러는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설정했다.

ppbn@news1.kr



MC몽, 가온차트 주간 3관왕

'내가 그리웠니'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MC몽의 신곡 '내가 그리웠니'가 가온차트 주간 3관왕에 올랐다.

13일 가온차트에 따르면 MC몽의 '내가 그리웠니' (Feat. 진실 of Mad Soul Child)는 46주 차(11.02~11.08) 가온차트 디지털종합차트와 다운로드차트, 스트리밍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종합차트에서는 2위부터 11위까지 모두 MC몽의 신곡들로 채워졌다.

한편 가온차트 앨범차트는 슈퍼주니어의 'THIS IS LOVE'가 1위에 올랐다.

kun1112@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21)>

김일제 후손들, 한(漢) 나라를 떠나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문무왕 비문. 경주 박물관에 소장

왕망의 신(新) 나라가 멸망 당한 다음에 왕망과 인척 관계에 있었던 김일제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한(漢) 나라를 재건한 후한(後漢) 광무제에게 왕망과 김일제 후손들은 반드시 처벌할 대상이었다.

당시 김일제 후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광무제의 힘이 미치지 않는 먼곳으로 피신하는 것이었다. 당시 김일제 후손들의 도피행각이 대당 김씨 부인 묘명(大唐金氏夫人墓銘)에 잘 기록되어 있다.

김씨 부인은 당나라 조정에 벼슬했던 신라 사람 김충의(金忠義)의 손녀이고 김공량(金公亮)의 딸이었다.

일찌기 이구라는 당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장안에서 살다가 AD 864년 3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1954년 섬서성 서안 광가탄에서 김씨 부인의 묘비가 발굴되었는데 비문에 왕망 이후의 김일제 후손들의 행각이 기록되어 있었다. 2009년 4월에 부산 외국어 대학 권덕영 교수가 비문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태상 천자(太上天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열어 드러 내셨으니 이름하여 소호금천(少昊金天)이라 하니, 이 분이 곧 우리 집안이 성씨를 받게 된 세조(世祖)시다. 그후에 유과가 갈라지고 갈래가 나뉘어 번창하고 빛나서 온 천하에 만연하니 이미 그 수효가 많고도 많도다.

먼조상 이름은 일제(日磾) 시니 흉노 조정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한(西漢)에 투항하시어 무제(武帝) 아래서 벼슬하셨다. 명예와 절개를 중히 여기니 그를 발탁해 시중(侍中)과 상시(常侍)에 임명하고 투정후(稭亭侯)에 봉하시니, 이후 7대에 걸쳐 벼슬함에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경조군(京兆郡)에 정착하게 되니, 이런 일은 사책에 기록되었다.

견주어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몇 세대 후에 어진이가 나타난다는 말을 여기서 징험할 수 있다.

한(漢) 나라가 덕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난리가 나서 괴로움을 겪게 되자, 곡식을 싸들고 나라를 떠나 난을 피해 멀리

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은 멀리 떨어진 요동(遼東)에 숨어 살게 되었다. 지금 다시 우리 집안은 요동에서 불이 타오르듯 번성하고 있다.”

위의 비문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문 내용에서 신라 김씨 부인의 조상 김일제의 후손들이 요동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런데 신라 김씨인 자신의 조부 김충의 나 부친 김공량은 신라에서 살았으니 두 내용을 합치면 김일제 후손이 신라 김씨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신라 김씨가 흉노의 왕자 투후 김일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문무왕 비문과도 부합되는 사항이다.

두 번째는 김씨의 뿌리가 소호금천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신라 김씨(경주 김씨) 문무왕 비문에 자신이 소호금천의 후손이라고 기록하였고, 가락 김씨(김해김씨) 김유신의 묘비에도 소호금천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김유신 열전에서 신라 사람들이 소호금천의 후손이라 하는데 가락 김씨 김유신 비문에도 소호금천의 후손이라 하니 신라 김씨와 가야의 시조 김수로



섬서성 서안 에서 발견된 김씨부인 묘명

는 동성(同姓)이 된다고 기록하였다.

세 번째는 김일제의 후손들이 요동 지방으로 도피한 이유가 김일제 왕망과 연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무제(漢武帝)는 BC 86년에 흉노의 본거지 오르도스 지역의 금성현에서 5만 명의 흉노인들을 김일제의 영지인 투성(稭城; 지금의 산둥성 하택시)으로 이주시켰는데 왕망 정권이 무너지기 다음에는 이곳에 살던 모든 흉노인들이 보복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화천

짐작컨대 요동지방에는 꽤 많은 김일제 후손들과 흉노인들이 모여 들었을 것이다.

왕망은 평소에 고구려를 하구려라고 부르며 폄하하곤 하였다. 그래서 고구려와 왕망은 적국의 관계였기 때문에 요동 지방이 흉노인들에게는 편안히 지낼 장소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일절 기록이 없다.

적대국가 고구려를 피해 한반도 서해안의 뱃길로 한반도 남쪽 김해, 경주 지방과 규슈 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뿐이다. 그 증거로는 왕망의 신(新) 나라 때 사용했던 ①화천(貨泉)과 오수전(五銖錢)이 만주 요령에서 시작해서 평양, 황해도, 나주, 김해패총, 성산패총, 규슈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학자들은 김일제 일가의 도피로가 화천, 오수전의 출토지와 일치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일제 후손들이 한반도로 도피, 이주하면서 이땅에서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 줄을 잇게 된다.

서기 23년에 왕망의 신(新) 나라가 망하고 꼭 19년만인 서기 42년에 한반도 남단에서 한반도 최초의 김씨이며, 가락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 금관 가야를 개국하였다.

23년 후인 서기 65년에는 서라벌의 도읍지 금성(金城)의 시립에서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하게 된다.

화천(貨泉)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운 왕망은 한나라 왕씨 유씨(劉氏)를 아주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즉위하자마자 한무제(漢武帝)때부터 사용해 오던 오수전(五銖錢)을 대신해서 화천을 주조하여 통용시켰는데 백성들이 불평해서 화천과 오수전을 함께 사용하게 하였다.

왕망이 망하고 동한(東漢:後漢)을 세운 광무제 유수는 왕망 때 만든 화천을 아주 좋아하였다. 그 이유는 화천의 천(泉)을 풀어서 쓰면 백수(白水)가 되는데 백수는 광무제의 출신지 지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무제 때도 화천과 오수전을 그대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대신 화천을 백수진인(白水眞人)으로 점잖게 고쳐 불렀다고 한다. 화천을 후한 때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김일제 후손들이 도피행로에서 계속 화천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 주>

유럽의 학자들은 AD 375년에 시작해서 100여년 동안 유럽 전역을 휩쓴 훈족의 원류에 대한 연구를 지난 300여년 동안 해오고 있었다.

근래에는 독일 국영TV ZDF에서 훈족의 원류가 아시아 동단에 위치한 신라, 가야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훈족과 신라, 가야의 친연성을 게재할 계획이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학업성적을 좌우하는 Academic Writing 향상 및 SSAT/ SAT/TOEFL 목표점수 달성

2014 추수감사절 학업 향상 프로그램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23일과 27일은 제외)

오전 9:30 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강좌

SAT

- Vocabulary
- Grammar
- Critical Reading
- Essay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개별과목 선택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학비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TOEFL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shortcut만 찾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THAS의 특별한 TOEFL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연습한 덕분에 TOEFL 고득점은 물론 학업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 R.Kim (TAHS Student)
Johns Hopkins 대학 입학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 William Jameson (TAH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AHS helped me to gain the greatest result in a very short time. It was not only a test preparation institute, but moreover was my mentor, who encouraged me and brought confidence in me. Above all those things, the best thing about the academy was that it wasn’t just a place for me to go and study, but also was a place where I felt cared regarding my happiness and future. I believe it was an excellent choice in my life that I chose to take classes at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 V. Maeng (TAHS Student) Wellesley College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하버드역에서 1분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사람의 인연이나 삶 그리고 사랑에도 때가 있는 법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려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하고 어색하기에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처음 만나서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연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사랑이야 오죽할까. 첫 만남에서 불화산 같이 불이 번쩍 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롯불 안 재에 덮인 불씨처럼 은은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남은 시절 인연이 와야 이루어진다고 선가에서는 말한다. 그 이전에 만날 수 있는 씨앗이나 요인은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시절이 맞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 만날 수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가 시절 인연이 와서 비로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만남이란 일종의 자기 분신을 만나는 것이다. 종교적인 생각이나 빔빔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접촉될 때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마음이다. 마음이 열리

면 사람과 세상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중에서 -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의 구분이 정확한 내 경우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점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일에서는 그 일에 몰입해 열정과 끈기로 결과가 확실하도록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는 마음이 동하지 않아 달려들지 않으니 때로는 방관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과의 중간 정도면 딱 좋겠는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쉬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삶에서도 나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쩌면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오래전 일이 떠오른다. 세 아이를 키우며 참 많이 몸과 마음이 분주한 시기를 보냈다. 딸아이가 세 살 되었을 때 Pre-school(유아원)에 내려놓고 오는 길에 연년생인 두 녀석이 뒷 자석에서 잠이 들면 세 시간 동안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것도 눈 덮이고 추운 겨울에는 더욱 힘든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내게 버거운 시간이었다. 엄마

라는 자리가 나와 너무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다. 그리고 그 가슴 속이 달래지지 않아 늦은 밤 남편과 세 아이가 잠든 시간에는 끄적이며 남기는 하루의 일기와 붓글씨 그리고 그림(유화) 그리기로 나를 달래곤 했었다.

그렇게 서른에서 마흔이 되는 십 년은 세 아이를 위해 나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아니 정신을 다른 곳에 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마흔이 되었다. 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해 다닐 무렵이었다. 이제는 무엇인가 나도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다.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그 어느 누가 내 이름을 따로 불러 줄 이 없었다. 그저 누구의 아내와 어느 집 며느리 그리고 세 아이 엄마의 이름표만이 나를 말해줄 뿐이었다. 아직은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때임을 알지만, 더 늦기 전에 무엇인가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글쓰기와 붓글씨 그리고 그림을 그리던 훈련이 나의 삶의 밑거름이 되었다. 배꼽 저 아래의 끝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요동치는 예술적인 기운(끼)을

누르지 못할 때 쉬지 않고 해오던 매일의 글쓰기가 나를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와 앞으로의 꿈을 설정하게 했으며 정성 들여 써내려가던 붓글씨의 성경 구절이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덧바를수록 신비해지는 유화를 통해 내 안의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세 아이를 키우며 버거웠던 시간마저도 내게 필요했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세 아이가 훌쩍 커버린 지금에야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 성인들의 귀한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자신에게나 또 자신의 삶에서 욕심은 가지되 허욕을 부리지 말자는 얘기다. 자신의 피와 땀과 노력 없이 무엇인가 바라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도둑 심보는 아닐까 싶다. 사람의 인연이나 삶 그리고 사랑에도 때가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나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오랜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찾아온 귀한 인연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심안이 열려 비로소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낙화유수落花流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보스톤 봄은 수줍다. 여름과 겨울 뒤에 항상 숨는다. 늦겨울인지 이른 봄인지, 늦은 봄인지 이른 여름인지 해마다 헷갈린다는 말이다. 보스톤 가을은 선이 굵다. 이 달초, 첫눈이 비와 섞여 내렸고 뭉뚱 추웠다. 현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늦가을로 돌아왔다. 겨울이 맛만 보여준 건지, 간을 본건지. 아니면 풍선만 띄워 날려 보냈던가.

월동준비는 마치셨는지.

얇은 봄이면, '어디쯤 가고 있을까' 라는 가을을 이따금 입안에서 굴렸다. 한국 군대 말년에 들어 귀에 익어 그런 모양이다. 기억하시는가. 뜰망한 여가수가 나와서 부르던 그 노래 말이다. 가을이 깊어 가는데, 웬 뜰금 없이 낙화인지. 그러나 떨어진 꽃잎을 낙엽

으로 바꾼다해도 어색하지 않을까 싶다.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노랫말 중에 노랫말이 스스로 아름다운 곡이 있을 것이다. 이 가사는 낙화유수落花流水를 풀어놓은 듯한데, 노래가사치고는 매우 평이하다. 그런데, 곡을 넣어 여가수의 또량한 목소리에 실릴 적에, 노래방 배경화면을 어렵지 않게 불러들인다. 일면 청승맞다 해야 할 것이고, 낙화落花와 흐르는 강물인 유수流水가 사자성어로 자연스럽다.

낙화유수落花流水는 '가는 봄의 정취' 라 했다. 정취는 정취인데 오히려 가슴이 쓰리

다. 남녀 사이의 그리워 하는 정을 말하기도 한단다. 떨어지는 꽃잎과 흐르는 물이 가는 봄을 아쉬워한다 해도, 남녀간의 정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건 아리송하다. 하긴 남녀 관계에 무슨 이유와 명분이 있을 것인가? 원래 사랑이란 원래 아리송한 건가. 알다가도 모르는게 사랑인지. 내가 너무 따졌나 보다. 참, 낙화유수가 그 옛적 '낭만과 주먹' 중에 중간보스 별명이라 들었다. 주먹 '낙화유수' 는 소위 일류대학 상과를 나왔다 했는데, 그 시절 주먹치고는 지나쳤다. 뭐 두사부일체도 아니면서 말이다. 하여간, 주먹세계에 낭만이 있을까만, 별명은 그럴듯 하여 낭만적(?)이다.

보스톤 마라톤은 반환점이 없으니, 갔다가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인생에도 반환점이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올해 가을, 이 날도 다

시 돌아 오지 않을것이다. 아니면, 정상을 밟았으니, 내려올 때라고 일부러 가져다 붙인다. 정상에는 텐트는 고사하고, 자리펴고 밥한끼 먹을 공간도 없다. 주저 앉을 자리가 없으므로 내려와야 할 밖에 다른 도리는 없다. 고은 시인이 읊었던가. '내려올때 꽃이 보인다'. 꽃을 보면서 내려오는 때이다. 깊은 가을날 하산길이 너무 먼건 문제다. 가을이라 그런가 센치해졌다. 차중락을 찾아 들어야 할꺼냐. '낙엽따라 가벼운 사랑' 을 그가 불렀다. 강물에 떠내려간 낙엽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떠나간 내 청춘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주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나를 놀라게 할 작정이십니까?' (현대인 성경 욱기 13:46)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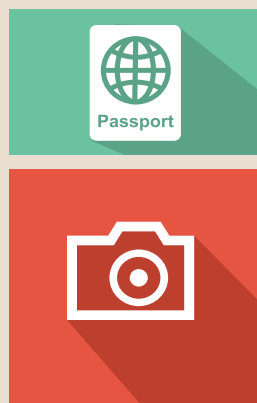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6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馬上六技(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무예도보통지의 마상육기馬上六技(6) - 이번에는 무예도보통지의 격구편을 중심으로 격구의 전래와 발전과정 그리고 변모의 형태, 또한 장비와 경기규칙 등을 따라가본다. '경국대전' 92)에 이르기를 "장시杖匙(격구체의 손가락 모양 부분)의 길이는 9치(약27cm)이고 너비가 3치(약10cm)이며, 자루의 길이는 3자5치(약 115cm)이고, 공의 둘레는 1자3치(약 40cm)이다.

말이 출발하는 출발표와 공이 있는 구표는 50보의 거리를 둔다. 구표와 구문(毬門)은 200보의 거리를 둔다. 구문내의 길이는 5보이며 공을 쳐서 구문을 빠져나가면 15푼 점수를 주고 빛나가는 자는 10점을 준다" 고 기록되어 있다.

'용비어천가' 주전에 이르기를(용비어천가 주는 성삼문, 이계, 박팽년이 달았다),

"고려시대에 매년 단오절에 예선에서 뽑힌 무관 중 젊은 사람이나 고관의 자제들이 한 길가 넓은 곳 구구九逵(아홉 군데로 통하는 큰 길, 즉 광장같은 장소이다)에 용과 봉으로 수놓은 장막을 설치하고, 장막 앞 좌우에 각 200보를 허용하는 그 길 가운데 구문을 세우고, 길

양편에 오색 금단으로 장식한 부녀의 장막에 명화名畵로 수놓은 방석을 깬다. 격구자는 성대한 복장과 온갖 꾸밈을 다하여 궁극 사치가 화려하다. 안장 하나의 비용이 중인 열집의 재산과 맞먹었다.

2대로 나누어 좌우로 섰다가 기생 한 사람이 공을 잡고 걸어 가는 중 주악이 그치면 공을 길 가운데로 던진다. 좌우에 있던 대오 모두가 말을 달려 공을 다루는데, 먼저 잡는 자가 수격首擊(맨먼저 공을 친다)이 되고, 모두 물러난다. 서서 구경하는 자가 산적한 것 같다.

공민왕 시절에 태조와 함께 선발된 자가 격구를 할 때 말을 달리는 것이 너무 빨라서 이미 수양垂揚이 되어 버렸다. 공이 홀연히 등에 부딪혀 말 앞 두 발 사이로 들어와 뒤 두 발 사이로 나왔다. 태조는 즉시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 옆으로 말꼬리를 방어하듯이 치니 공이 다시 말의 앞 두 발 사이로 나와서 다시 쳐서 내보낼 때 사람들이 방미防尾라 했다. 또 격구를 할 때 이미 수양구垂揚毬가 되어 다리 기둥에 부딪쳐 말 왼편으로 나왔다. 태조는 오른쪽 안장에서 벗어나 몸을 뒤집으면서 아랫발이 땅에 닿기 전에 쳐서 맞추어 즉시 말로 돌아와 말을 다시 타고 다시 쳐서 구문으로 내보냈다. 이를 사람들이 횡방橫防이라 했다. 거국적으로

놀랄 일이었고, 전고에 듣지 못한 일이었다."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을 보면 태조 이성계의 격구 실력은 경이를 넘어 신기神技에 도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나오는 축국蹴鞠은 '별록別錄' 93)에 의하면 "황제가 만든 병세의 기본이다. 후 이르기를 전국시대에 일어나서 무사를 단련시켜 재간있는 자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황제는 한나라 성제成帝를 말한다.

'무경武經' 18반 무예에도 보면 축국(또는 현대의 태권도의 발차기 동작)의 동작과 같은 차는 무술이 있다. 먼저 '축국보'에는 "매 사람마다 두번 차는 것을 타打라고 하고, 두번 끌어 얼어 크게 차는 것을 백타白打라 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무경의 18반 무예를 보면, 궁弓, 노弩, 창槍, 도刀, 검劍, 모矛, 순盾, 부췌, 월鉞, 극戟, 편鞭, 간簡, 과 수, 차叉, 파두杷頭, 면승투색綿繩套索, 그리고 백타白打이다.

참고로 '무경칠서'는 손자병법, 오자병법, 사마법, 육도, 율요자, 삼략, 이위공문대 등 중국에서 가장 보배로운 병서들이다.

옛 병서들을 보면 축蹴은 발로 하는 동작을 말하고 국鞠은 공을 말함인데, 당나라의 서견

徐堅 등이 현종의 명을 받아 쓴 '초학기初學記'에 보면 "국鞠은 곧 구蹴자이다. 지금 축국은 공놀이로, 옛날에는 털을 이용하여 문쳐 만든 것이다. 지금은 가죽으로 포脬를 만들어 속을 삼고, 허기嘘氣를 막고 차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당나라 현종 이후에는 소의 방광을 이용하여 공을 만들어 축구를 했음을 보여준다.(현재 사용되는 축구공이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의 공놀이는 현대 까지도 이어져 왔다) 또한 '중산시화中山詩話'에 보면 마상격구가 페르시아에서 전해지기 전부터 당나라에서는 축구를 했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섬서통지陝西通志'에도 보면 "축구蹴鞠은 당나라에서 시작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92)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으로 세조가 즉위와 더불어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15년(1484년)에 완성하였다. 우리나라 보물 제1521호.

93) 전한前漢 때 유항劉向(BC 77? - 6)이 편찬했다. 원본은 없어졌고 청대清代 홍이훤 등이 편찬한 집본輯本이 전한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u Klux Klan의 어제와 오늘 (2)

지난 칼럼에서 남북 전쟁후 재건시대 남부 백인들의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들에 대한 증오감이 뒤범벅되어 KKK가 탄생했으며, 1920년대 국수주의적 반이민 정서가 "앵글로 색슨 개신교 남성"이 아닌 모든 정체성을 배격하는 2기 KKK운동으로 확대 발전했다가 자중지란으로 소멸했던 간략한 역사를 언급했다.

민권운동에 반발하다 - KKK의 르네상스기

하여간에 KKK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1950년대, 물론 급격하게 회원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매카시즘의 물결을 타고 KKK가 재등장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또한 KKK의 저변에 흐르는 정서적인 유사성 때문에 나치즘과 본인들을 차별화하기가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KKK는 인종차별 테러집단의 정체성을 복원한다.

1950년대에 발생한 흑인 혹은 사회 활동가들 대상으로하는 빈번한 방화, 살인, 집단 폭력 사건의 언저리에는 자생적으로 다시 부활한 KKK의 망령이 도사리고 있었다. 가령 1951년 크리스마스 이브, 플로리다 주 밌스 소재 가정집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해 해리 무어와 해리 무어는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위원회 (NAACP)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로 폭탄 테러는 명백히 이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이르는 흑인 민권 운동의 시기, KKK의 증오범죄 역시 극단

을 달렸다. 이 시기 KKK의 활약상은 광기에 가까운 노골적인 인종주의의 민낯이었다. 가령, 1960년대 초반 버스로 여러 도시로 옮겨 다니며 인종분리 정책을 문제를 고발하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던 프리덤 라이더 (Freedom Rider)들이 새로운 도시에서 버스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맞아드렸던 현실이 바로 KKK의 무차별적 린치였다. 물론 이 상황은 TV로 생중계되어 KKK식의 인종주의가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인식을 전국적으로 가중시켰지만.

1960년대에 KKK멤버들은 NAACP 활동가들을 타겟으로 한 참혹한 살인을 벌였다. 대표적인 한 케이스가 바로 메드거 에버스 (Medgar Evers) 암살사건이다. 메드거 에버스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미시시피 대에 입학할 거 부당한 전력이 있는 NAACP 활동가다. 후에 에버스는 제임스 메리디스 (James Meredith)가 미시시피 대학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의 인종분리정책을 종결시키기 위한 활동을하기도 했다. 때는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기 위해서 당시의 앨라배마 주지사 조지 월러스까지 나서 강의를 봉쇄했던 그런 시기.

1963년 6월 12일 아침, J F 케네디 대통령의 민권운동을 지지하는 연설이 TV로 중계되었다. 그 날 밤, <짐크로우는 사라져야한다>는 문구를 내달고 다니던 에버스는 자신의 집앞에서 총

격을 받았다. 에버스를 살해한 범인이자 "백인 시민협회 (White Citizen Council) 라는 이름의 KKK단원이었던 바이런 백워드 (Byron De La Beckwith)는 1994년에야 유죄가 인정되었다. 에버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아직 사망 전이었으나 병원측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미시시피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운동을 벌이던 두 명의 백인 활동가와 한명의 흑인 CORE (Congress of Racial Equality) 소속 활동가가 KKK 단원에 의해 살해되었던, 그 리하여 미시피여름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오늘의 역사가 공들여 기록하지는 않지만, 1960년대 당시 미시피피에서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의 살인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FBI를 비롯한 수사 당국은 KKK 단원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는 데에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21세기의 KKK: 변하지 않는 것들

물론 민권운동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고, KKK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KKK는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증오범죄 그룹에 뿌리를 둔 오늘날의 KKK는 "우리는 증오가 아니라 (가정과, 백인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백인에 대한 전쟁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는 그래도 진보했고, 그만큼

KKK역시 반세기 전까지처럼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기 힘들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런데 KKK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정신이 달라졌을까? KKK는 언제나 나와 피아의 차이를 부각시켜, 피아를 타자화하고, 배제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분노와, 공포, 죄의식과 우월감 등이 뒤섞인 복잡한 상태에서,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이 율리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균질성이 될 때, KKK 스타일의 극단적인 집단 병리가 나타나곤 했다. 폭력을 배격한다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는 (자격이 있는) 백인이라는 정체감에서 시작하는 KKK는 유전자가 건강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9월 말엔가, 제복입고 썬글라스 낀 자칭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이라는 중년들의 활약(!)을 인터넷으로 접했다. 미군정기에 활동했던, 백색테러 조직 서북청년회를 다시 만들겠다는 발상에, 그저 끄찍하고 놀라웠다.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세월호 노란 리본의 철거라는 사실을 지켜보면서, 서청 재건위원회가 지켜야 할 '체제'의 양상함에 가슴이 한 번 더 아팠다.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케임브리지한인교회 담임목사:김태환

5th REGULAR CONCERT

CHOIR & ORCHESTRA OF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THE MANY MOODS OF CHRISTMAS

- A Christmas Concert -

Tchaikovsky: The Nutcracker Suite
Kim: The Many Moods of Christmas
Christmas Anthems & Carols

KEEYOUNG KIM, *Conductor*

YOOSUN NA / MIN YOUNG CHO / EUNYOUNG PARK / JEEHYE KANG, *Sopranos*

MOSE OHKYEONG KWON, *Baritone*

JISUN OH / STEPHANY KIM, *Flutes*

SUNYOUNG MOC, *Oboe & English Horn*

DANBI CHO, *Clarinet*

SO-YOUNG CHOI, *Violin*

YOUNG SOOK LEE / HYUN-JI KWON, *Cellos*

YOONAH OH / JIYUNG JASMINE LEE, *Pianos*



2014.11.21 Friday 7:30 PM

@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35 MAGAZINE ST. CAMBRIDGE, MA



2014
ReNEW

Revive the New England Wave
ReNew Boston 2014 후원 음악회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나요?"
(올바른 성교육VII, 사춘기 여아 13-18세)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지난번 칼럼을 통해 필자는 청소년의 자존감 형성은 나쁜 성관계를 방지할 수 있는 '성교육'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피력했다. 여아가 갖고 있는 천성이나 본성을 무시한 채, 사회가 요구하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나 '소녀 문화'에 여아를 억지로 집어 넣으려 한다면,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의 부작용은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여아와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여아가 다른 아이보다 못할 경우 여아를 힐책할 수 있고, 부모의 힐책에 여아는 자신감을 잃게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아이보다 나은 경우도 마찬가지 결과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언제나 누군가 더 나은 대상이 있다. 그 결과 공부 잘해도, 얼굴이 예뻐도 자신이 항상 무엇인가 모자란 느낌을 지니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반 컵 차여있는 물을 보며 반 컵 '만' 있다고 걱정하며 불평하는 '부정적인 삶의 자세'인 것이다. 사회가 만든 '여성화'의 틀이 아닌, 자연스러운 환경적 조건에서 '한 인간화'의 가치를 가르쳐준다면, 여아는 자존감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존감은 태어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삶의 태도가 바뀌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형성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자존감'은 남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오는 자연스러운 성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부모가 여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간섭을 줄이고, 설혹 하고 싶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최대한 허락하려고 노력하면 여아는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실패를 하고, 다시 도전하고, 성공을 경험하면서 피땀 흘려 얻은 기쁜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이 감정이 자존감이다. 실패를 성공만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은 부모의 순수하고 정직한 애정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 결과, 여아의 자존감은 반 컵 차있는 물을 보며, 반 컵 '도' 있

다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K양은 처음으로 학교 등산 동우회에 참석하기로 마음 먹었다. 외양을 중요히 여겼던 K양은 일류 메이커의 장비와 등산복을 구비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시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모를 졸라 비싼 돈을 들여 등산 장비를 마련했다. 부모는 딸의 자존심을 지키려 주고 싶었다. K양은 막상, 산을 오르기 시작하며 체력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함을 발견했다. 창피했지만 도중 하산을 해야만 했다.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오래된 회원들의 낡은 장비, 닳아 빠진 등산복이 빛나 보였다. 넘치는 활기와 체력이 경이로웠다. 찢절때는 자신에 맞추어 같이 오르려던 그들의 배려는 자신의 일류메이커의 장비와 등산복을 부끄럽게 했다. '자존감'의 형성은 물질로 살 수 있거나 한번의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경험한 것이다. 수십 번 등산을 하면서 쌓아온 자신의 체력과 싸움, 경험, 선배들의 따뜻한 충고에서 이뤄지는 것을 깨달았다. K양은 자신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다시 등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존감을 얻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실패와 성공을 같은 가치로 볼 수 있는 청소년 여아는 '아버지와 대상화' 형성 과정이 튼튼하다. 프로이드는 이 과정을 오디프스 시기라고 명명했다. 필자는 이 시기의 형성이 청소년 여아의 자존감 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4~5세가 되면 딸은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와 경쟁한다. 사랑스런 여아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의 호감을 사려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딸은 어머니와 일종의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어머니를 대적하기에는 무력함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사랑 받는 어머니와 비슷해지려 한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커서 아빠와 결혼하겠다"며 오디프스 시기를 겪는다. 프로이드는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남아있고, 그래서 성숙한 여성성을 가지는 대신에 미성숙한 여성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 크게 두 가지를 열거한다. 첫 번째는 어릴 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와의 대상화가 결여되어, 남자 동일화(Male Identification)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린 여아는 아버지의 방임과 무책임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우상화한 아버지'로 대체한다. 자신의 결핍된 사랑을 환상 속에서 충족시키는 것이다.

미성숙한 오디프스를 겪은 사춘기의 청소년이 누군가에게 연정을 갖게 되면서, 무의식 속에 자리잡은 오디프스 콤플렉스로 갈등하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부재로 받았던 무의식 속의 상처와 왜곡된 관계가 다른 이성과의 처음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인기 많은 남아의 달콤한 감언이설이나 우상화한 행동은 여아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주거나 지금껏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을 보상해준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춘기의 남아의 이 자기도취적인 사랑은 책임보다는 만족감과 희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아가 가져온 상처가 치유되기보다 더 큰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

제인은 무남독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지니며 성장했다. 결혼 6년 후, 어렵게 얻은 딸이었다. 어머니는 '은실 속의 화초'처럼 금이야 옥이야 조심스럽게 키웠다. 제인이 태어날 무렵, 제인 아버지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며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사일로 한 달에 20일은 해외 출장 중에 있었다

. 어머니는 남편의 부재를 딸과의 밀착관계로 보상받으려 했고,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정의 착하고 순종적인 주부였다. 아버지는 능력 있고 멋있는 남자였지만, 출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제인과 재미있게 놀아주기보다는 권위적이고 무심했다. 제인이 사춘기가 오면서, 아버지와 더욱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남친이 생긴 이후로 학교는 뒷전이고, 집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며 집을 나가곤 했다. 남친과 헤어진 후, 제인의 행동은 것 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더 이상 제인의 행동을 감당할 수 없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대화를하려 하자, 제인은 무시하며 방을 나갔다.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 아버지는 제인의 얼굴을 때렸고, 태어나서 처음 구타를 당한 제인은 충격에 빠졌다. 그 이후 아버지를 외면했고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테라피 과정 중, 제인은 아버지의 부재로 온 내면의 깊은 상처를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신' 같은 존재였다. 출장의 이유를 들며 자신의 중요한 날들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아버지였지만, 제인에게 아버지는 신의 존재였고 그러하기에 이해를 받아야 할 어린 소녀가 예측 불가능한 어른 아버지를 이해해야 했다. 그럴수록, 아버지의 존재는 더 선명되고 동경되었다. 제인의 옛 남친은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었다. 옛 남친은 제인의 마음을 흘려놓고 다가가려 하자 무심해졌다. 집착하는 행동의 원인을 제공하고는 제인이 집착하는 행동을 한다며 회피하고 무시했다. 제인은 남친이 더 선명되고 동경되었다. 모든 원인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으며 자책했다. 제인의 빈약한 자존감이 원인이었다.

테라피를 과정을 통해 제인이 어떻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는지, 미성숙한 오디프스 시기를 겪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을 이야기한다.

“보스톤엔 보스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29.99

(2년 약정시)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6)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는 더 크게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the richer get richer and poor get poorer)” 라는 말은 영국 시인 퍼시 (Percy Bysshe)가 1821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1832년 미국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이 반복했습니다. 이 말이 정녕 사실일까요?

대답부터 먼저 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미국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latest data)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합니다. 미국에 최소 \$100만불 이상을 보유한 가정이 960만(9.6million)이라고 합니다. 집 가격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입니다. 작년(2014)에만 600,000세대가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500 백만 불 이상을 보유한 가정은 120만이나 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백만장자의 숫자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의 자산이 작년

한 해 동안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미 주식시장 (S&P 500 지수)에 \$1불을 투자했다면 현재 \$3불로 불어났습니다. \$100만 불 투자는 현재 \$300만 불로 200% 이상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

교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부자는 주식시장에 투자한 습관대로 계속 투자하며 가난한 사람은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가 된 그대로 행동하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생활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없다면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가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가질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의 35%만이 주식시장에 투자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72%가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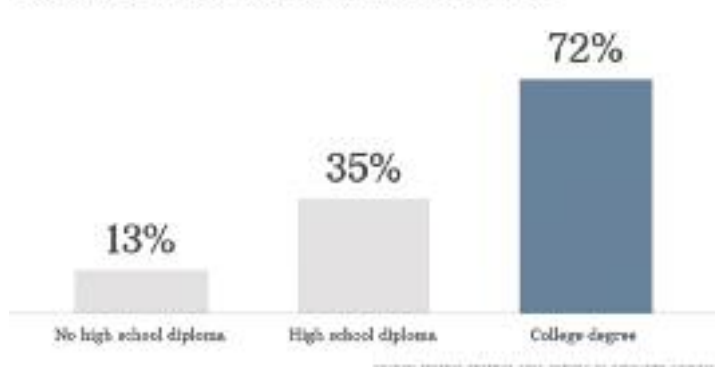
로또 당첨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잘해서 바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부자가 된 대부분 사람이 부자가 된 이후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적은 수입을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2살 부터 로스 (Roth) IRA에 \$5,000씩 10% 이자로 투자하면 은퇴할 나이 62살까지 투자하면 노후자금 \$200만 불이 모여집니다. 이 은퇴 자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세월이 지난 후 커다란 목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부자처럼 규칙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 전체 인구의 반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대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계자료가 없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많은 수는 아니라고 추측해 봅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하면 은퇴할 때쯤 커다란 목돈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Percentage of people with money in the stock market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은 2012년과 비교하여 미국 한 가정에 대학교를 졸업한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완벽한 집’ 고집하다 기회 놓칠 수도

흠 바이어들은 나름대로 재정 계획과 목표를 갖고 냉정한 자세로 집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매물로 나온 집을 하나 둘씩 보는 과정에서 절제력을 잃으며, 감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고, 이는 오판으로 이어지기 쉽다. 집을 구입하는 일은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큰돈을 거래하는 일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바이어의 마음을 흔드는 일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례와 대책을 살펴본다.

■ “더 좋은 딜이 있을 거야”

매물들을 살펴보고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바이어들은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눈앞에 있는 최상의 거래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고, 여기에도 이자율 역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가격에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회를 놓치면 심리적으로 조급해져 원래 가졌었던 좋은 기회보다 훨씬 나쁜 조건의 집을 구입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또 에이전트들도 바이어가 자주 결정을 미루면서 다른 집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만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이어가 정말 집을 살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집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용자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원하는 가격대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인지를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이전트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첫 눈에 반했어요”

집을 보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한 번 생기면 없애기도 쉽지 않고, 나중에 보는 집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집은 자신이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칠 때까지 자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은 다양한 모습과 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도 위치와 건립연도, 주변 환경 등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첫 눈에 반한 집이 최상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도 매우 높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가급적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발품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주택과 주변 환경의 장단점을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을 자주 미루는 것도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맘에 든다고 덥석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 꼼꼼하게 비교하고, 고민해야 한다.

■ “완벽한 집을 찾아야 해”

바이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신의 마음에 100% 드는 집을 찾아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집을 구입할 수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정답이다. 마음에 들면 가격이 비쌀 수 있고, 가격은 낮는데 이곳 저곳 손을 봐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완벽한 집을 고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을 구입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같은 사이즈의 집이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이 와중에 절제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우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완벽한 집을 찾겠다는 압박감은 올바른 결정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쉽다.

■ “숯세일 또는 차압주택이 쌀 거야”

집을 사려고 하다 보면 사방팔방에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된다. 그런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시장에 숯세일이나 은행에 차압된 주택을 구입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돈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맹신하는 것은 스스로 객관성을 잃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차압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구입 가격은 낮았지만,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되면서 결국 제값에 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물론 이런 주택들을 구입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집을 구입할 때 중요한 기본 자세는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매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구조 등을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 시장변화에도 이 매물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에 관해 넓고 멀리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보스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벤자민 젠더
지휘자

시벨리우스

핀란드아
투오넬라의 백조

교향곡 7번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백혜선, 피아노

샌더스 극장

11월 20일 - 7:30PM

11월 23일 - 3:00PM

조던 홀

11월 22일 - 8:00PM

BOSTONPHIL.ORG

617-236-0999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9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스포츠

하버드는 NCAA Division 1에 소속된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이다. "아이비"라는 단어의 시작과 유래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오랜 역사의 우수한 대학들이 아이비 클럽, 나무들을 심고, 또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 활용된 단어인 것 같다. 그런 후, 1935년부터 대학 스포츠리그에까지 사용이 확장되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유독 스포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적 우수성과 리더십이 뛰어난 대학 집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하버드에서 제공하는 대표 스포츠 종목들은 남,녀 종합 40여개로 구성된다. 야구, 농구, 조정, 크로스 컨트리, 펜싱, 미식축구, 골프, 아이스하키, 라크로스, 보트(Sailing), 스키, 축구, 스쿼시, 수영, 테니스, 육상, 배구, 수구, 레슬링, 하키, 럭비, 소프트볼 등등... 위에 나열된 모든 종목들은 리쿠르트를 통한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목표로 진학 지원을 계획한다면, 희망 종목에서의 개인 랭킹과 경험, 그리고 높은 AI(Athletic Index)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매년 20-35%정도의 하버드 신입생들이 스포츠 리

쿠르트의 경로를 통해서 확보되고 있다.

하버드에서 말하는 대표 스포츠 라이벌로는 역시 예일 대학을 들 수 있다. 매년 진행되는 미식축구 게임에서 두 대학 학생들의 열띤 응원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홈과 어웨이 경기의 형태로 진행되며, 사전 입장권 예매는 좌석의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 라이벌 경기는 최고 대학의 많은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 응원하며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를 통한 학교의 홍보는 아주 빠르고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매년 하버드에서는 리쿠르트 활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리쿠르트는 종목과 그 케이스에 있어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팀 경기와 개인 기록 경기에 따른 리쿠르트 케이스의 구분이 있는데, 개인은 철저한 랭킹과 AI 점수, 그리고 팀은 리더십과 열정, AI점수가 아주 큰 관건이 되고, 지도 코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

재정보조와 등록금

하버드의 경우, 모든 지원 학생들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입학 사정에 있어 어떠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 되지도 않는다. 가족 구성원의 총수입이 \$65,000이하가 되면,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다. 그러나 많은 한국의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이 입학 심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하버드는 향후 40여년 동안 전체 학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키기에 충족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 지원자의 재정적인 요소가 입학의 당락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수자로 간주되어, 입학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올 해(2014-2015) 하버드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재정보조 수혜를 받았고, 이중 20%가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 결국, 이들 학생들은 그 어떠한 빛도 학교측에 지지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할 수 있다. 물론 하버드에는 업적 장학금은 없다. 그러나 학내, 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와 기회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올 해 하버드 대학에서 제시한 기숙사 비용이 포함된 전체 등록금은 약\$62,250-\$68,050 정도이다. 이는 연평균 약 \$3,000정도의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버드에는 다양한

리서치 펀드가 조성되어 있어, 흥미와 열정의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대한 사용 신청의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재정적인 요소가 개인 학생의 학과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하버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대학으로 유명하다.

"입학 허가 후, 주변 지인을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하버드에서는 재정보조의 혜택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접하고, 무심코 신청을 해 보았다. 그런데 하버드에서 년 \$45,000 재정보조에 대한 통보와 확인을 받았고, 또한 마침 당시 3학년 학기에 등록을 준비하던 친언니의 재정보조 심사까지 함께 확인되어, 년 총 \$35,000의 추가 보조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가족과 부모님께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이후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에도 역시 학교에서 비용 전액이 보조되었다.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인 선에서 적절하게 보조해주고 또 도와주는 좋은 학교인 것 같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Common Application을 사용하면, 학교 자체의 원서를 사용하던 많은 대학교들은 그 학교의 특유의 성격을 보여주는 에세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지난 칼럼 (특이한 에세이, 특별한 에세이)편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이나 터프츠 대학(Tufts University)처럼 색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공통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의 에세이를 각색해서 여러 학교에 비슷하게 제출할 수는 없다. 지원하는 학교마다 각 학교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Please tell us what you find most appealing about [our college] and why?"
 "Please tell us about specific academic, service, and/or research opportunities at [our college] that resonate with your back-

ground, interests, and goals." "How do you define yourself and what is it about [our college] that excites you?" 모두 올해 지원서 에세이 질문으로 나왔던 유형들이다. 질문 자체는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주어진 단어 수 제한 속에서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내 열정을 적절히 섞어서 표현하려면 막막해진다. 역시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선 질문자, 즉, 학교 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몇 번이고 강조해 왔던 점이지만 대학교 역시 학생을 고른다. 다시 말해서, 학교가 지향하는 학풍이나 이념과 지원하는 학생이 잘 어울릴지 유심히 파악하고 당락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에세이를 통해 학교가 내세우는 사명(Mission statement)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에 맞춰 교내,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물론, 학교가 제공하거나 장점으로 내세우는 전공 혹은 분야에 대한 조사는 기본이다.

예를 들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Bio-engineering(생물 공학)이고, 지금까지 이수한 수업이나 응시한 시험 (AP, SAT Subject 등)이 모두 과학계통인데 문학이나 경영학계통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에 지원한다면? 대학교의 명성만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지원했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운 학과는 피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비전문 학과

에 하향지원했다고 이해할 것이다. 학교가 내세우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혹은 이전부터 존경해 온 교수진 밑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에세이를 써야 할 판에 말이다.

에세이의 형식을 피고 있지만, 결국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학생의 미래 계획서다. 학교에 입학한 후는 물론, 5년 후, 10년 후까지의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물론 그 계획에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요소(State-of-the-art science laboratory, curriculum that focuses on interdisciplinary studies, Nobel Laureate faculty, study abroad programs, hands-on internship opportunity, etc.)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해당 학교에서, 특별한 교과 과정 속에서, 저명한 교수들 밑에서 배운 학문과 경험을 토대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일 장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I believe that a great academic institution not only educates its students in fundamental and practical knowledge but also provides the opportunities to engage themselves in discovery of said knowledge. Cornell's interdisciplinary majors that 'cross traditional departmental boundaries' are designed for both learning and challenge. 코넬 대학교의 웹사이트를 조금만 조사해보면 바로 발견할 수 있는 학교의

모토: Learning, Discovery, Engagement 그리고 학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특정 전공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을 기반으로 쓴 에세이의 도입부다. 더 자세한 조사를 한다면 코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학장이 임명되었다거나, 캠퍼스를 벗어나 지역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교과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1억 5천 달러 상당의 캠페인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코넬 대학교가 전통적으로 내세우는 Engineering은 물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Business marketing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소식 또한 학교 웹사이트를 조사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단순히 학교의 위치나 멋있는 교정, 도시의 문화적 배경 등을 열심히 설명한다고 학교가 바라는 학생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매일 몇 십, 몇 백 개의 에세이를 읽는데 지친 입학 사정관들에게 통하는 것은 열정과 진심이지만, 그걸 증명하는 건 학생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 [내 미래의 모교]에 입학해야 하는지, 즐겁고 특별하게 이야기해보자.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가?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